당신의 2025년은
어떤 프레임 안에 담으시겠습니까?

VOL.08 2024.12
지속가능발전강원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3호
ISSN 2713-590X

Vol.08

Ques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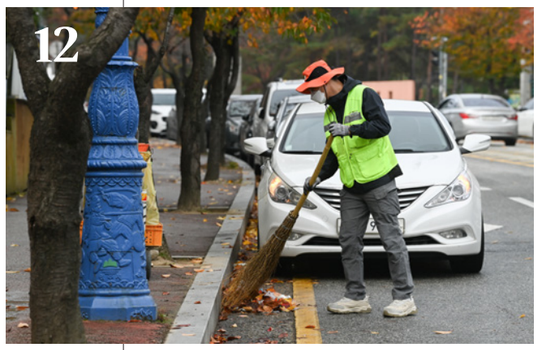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강원협의회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

Contents

Question 2024+Vol.08



Desk

04 데스크 편지
Patience Camp ,가능성과 희망을 재구성하는 공간

COVER STORY

05 기차 입석의 럭키비키

06 배 웅

10 새내기 조리실무사의 하루

12 낭만, 그 쓸쓸함에 대하여

16 청각장애인

18 마을버스를 타면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보인다

SDGs Q

24 시간을 잇다 다음을 품다

26 온라인 교육 플랫폼

28 아이 곁에 교사가 있으려면

30 여기는 덴마크 삶전환 인생학교입니다

34 삶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곳

36 숨지 않아야 트이는 길

40 나에게 쓰는 편지

Culture Q

42 도시와 관계 맺기

46 예술인의 삶과 SDG 1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SDG 16

50 1,975㎞ 유랑하던 지광국사탑
113년 만에 귀향



Life Q

54 '중앙동' 思母曲

58 하고 싶어? 그럼 해!

62 기억과 연대를 통한
단단한 도시 만들기

64 농업인새벽시장





Communication Q

66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식

68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70 속초의 보물 자연석호 청초호,
속초시민이 지킨다

72 평창의 지속가능한 발자국 남기기

시평

76 서울의 봄과 서울의 밤



Ques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Life

펴낸날
2024년 12월

펴낸곳
지속가능발전강원협의회

편집위원
김종남, 마득신, 손원교, 양호선,
오원교, 이상호, 장철현

책임편집
제현수

기획
김남형, 원상호, 서연남, 권경륜

디자인
정아진, 박미나, 김다슬

표지사진
오상민

제작
㈜도서출판 이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3호

전화
033-761-3223

팩스
033-766-8750

ISSN
2713-590X

Patience Camp,
가능성과 희망을 재구성하는 공간

1915년, 어니스트 새클턴의 인듀어런스호는 남극의 웨들해에서 얼음에 갇혔습니다. 웨들해는 자연의 무시무시한 힘을 상징하는 곳으로, 탐험가들에게는 생존의 경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시험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새클턴과 그의 대원들은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지만, 얼음에 갇힌 순간 모든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인듀어런스호는 침몰했고, 그들은 끝없는 빙하 위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얼음 위에 세운 '페이션스 캠프(Patience Camp)'는 단순히 시간을 견디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가능성을 모색하고, 협력과 인내를 통해 희망을 재구성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새클턴과 대원들은 이곳에서 634일을 견뎌냈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하기까지 그들의 생존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정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는 사실은 페이션스 캠프가 단순한 탐험의 실패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위기에 맞서 싸우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새클턴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목표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결단력을 보여주었고, 대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끈기와 협력이라는 인간의 가장 빛나는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이 놀라운 생존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면한 지속가능성의 위기와도 많이 닮아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불평등,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노동의 불확실성과 같은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들에 맞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확인했고,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거대한 열망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모두의 연대를 통해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클턴과 그의 대원들처럼 한계를 시험받고 있는 지금, '페이션스 캠프'가 주는 교훈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새클턴이 보여준 생존의 지혜는 단순히 극지의 고립된 환경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닐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퀘스천 2024에서는 가장 소외된 곳을 따뜻하게 보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이웃의 통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 특집은 다양한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어휘를 넘어서는, 지속가능성을 향하는 실제 삶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직의 지향과 관련한 또 다른 고민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온라인 플랫폼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클턴은 침몰하는 인듀어런스호를 지켜보며 "우리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힘없는 침입자들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자연과 마주할 때 느끼는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마치 기후위기는 우리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넘어, 인류가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며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얼음 위의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탐험대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보잘것없고 희망이 멀게 느껴질 때조차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온라인 플랫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페이션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페이션스 캠프의 여정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표지 이야기

[행운]
기차 입석의 럭키비키



글·사진 **오상민**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 간신히 얻은 간이의자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본다.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변화하는 풍경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겨냥한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다채로운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 탄생한다.

입석으로 힘들게 기차에 탔지만, 예상치 못한 풍경 사진을 얻었다.
프레임을 정했다고 내용까지 정해지는 건 아니다.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다. "난 지금껏 어떤 틀을 만들었지?"
문뜩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으면서 살아왔는지 궁금해진다.
입석을 탄 덕분에 사진도, 생각도 얻었다.
요즘 말로 럭키비키!

원주추모공원의 하루

배 웅

계절이 바뀌면서 세상은
아름다운 연둣빛 세상으로 물들었다.
그곳도 계절이 있고,
계절이 바뀌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일까?

글. (주)도서출판 이음
사진. 원춘식



오전 7시.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원주추모공원 진입로 양옆은 계절과는 다르게 황토색이다. 누군가는 이 황토색의 황량한 언덕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누구는 '근조 버스'에 앉아 지나온 날을 되새기며 추억에 잠기고, 길게 늘어선 장의차 리무진은 운구를 기다린다. 어딘가로 떠나는, 공항이거나 역이거나 버스터미널의 모습이다.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행기나 열차, 버스를 타기 위해 도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승객이 남긴 흔적은 이 세계에 남겨질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그런 것 같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휴대전화 시계에는 오전 7시 20분이 찍혀 있었다. 문을 열려면 아직도 10여 분이 더 남았다. 근조 버스 6대에 장의차 리무진 4대가 유족들을 내려놓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한 유족들은 추모공원 1층 로비로 들어선다. 검은색 옷차림의 유족과 고인의 지인들이 서성거리거나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인다. 아직도 고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훌쩍이거나, 통곡한다. 3~4살 아이들은 넓은 로비를 이리저리 뛰어 다니고, 상주들은 분주하게 1층과 2층을 오가며 추모공원까지 애써 와 준 문상객을 챙긴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벌써 오전 7시 30분. 추모공원 1층 사무실에 불이 들어오고, 버스 혹은 장의차 리무진이 들어 온 순서대로 접수가 시작된다. 1층 곳곳에 마련된 전광판에 '몇 번 화로 ○○○ 님 접수 중.'이 들어오고 곧이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온다.

"잠시 후 ○○○ 님의 운구가 시작됩니다. 유족께서는 1층 로비 운구 통로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아, 그 길을 가지 마오!

유족들이 장의차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고, 장례지도사와 운구를 도와줄 유족의 지인들이 흰 장갑을 끼고 대기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에 있다.

"자, 고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운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지도사 겸 장의차 리무진 기사의 인도로 고인이 잠들어 있는 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은 엄숙하게 추모공원 안으로 들어가 다른 운구 셔틀에 조심스럽게 놓인다.

"고인 분께서 ○○○ 님 맞으신가요? 맞으시면 지금 드리는 인식표를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화장로 입구 기준 왼쪽에 보이는 수골실로 유골함을 가지고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층의 3번 유족 대기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시겠습니다. 상주 한 분만 안쪽 끝까지 이동해 주시고 다른 유족분들은 밖에서 배웅해 주세요." 인식표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승차권 같았다. 잃어버리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없을테다.

원주추모공원 장례지도사 안내에 따라 유족들 눈길이 바빴다. 위~ 윙 낮은 기계음과 함께 운구 셔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유족들은 이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낸다. 관을 붙들고 한사코 놓지 않으며 오열하는 유족부터, 바닥에 주저앉아 목놓아 우는 유족까지 모두 다른 슬픔의 종류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어떤 이는 아직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갓 태어난 아이를, 어떤 이는 생떼 같은 젊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다. 화로가 있는 공간의 자동문이 열리고, 유족들은 여전히 눈을 떼지 못한다. 자동문은 무심하게 곧 닫힌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유족과 고인의 지인들은 힘겨운 걸음을 2층 유족 대기실로 옮긴다.

열기와의 전쟁

이제부터 뜨거운 열기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곳에 김정윤(47) 주임이 있었다. 16년째 장례지도사 일을 해오고 있는 베테랑이다. 시간은 벌써 16년이 흘렀지만, 어느 유족을 만나건 슬픔은 여전하다. 고인을 못 가게 막는 유족은 마치 김 주임이 데려가는 것처럼 생각해 폭력을 쓰기도 한다. 김 주임에게는 장례지도직으로 입사하면서 유족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때로는 경찰이 올 때도 있다. 모든 고인을 보낼 때 슬픔이 전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경우는 관의 주인이 아이였을 때다.

"저도 집에 5살 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인의 부모님도 가끔 오시지만, 5~7살 아이나, 갓 태어나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아이를 안고 오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요. 그렇다고 저도 함께 울 수 없어 꾹 참아내는









편입니다.”

일은 녹록지 않다. 운구 담당과 화로 담당, 수골 담당 등 세 분야로 나눠 일하고 있는데, 세 분야를 교대로 한다. 김 주임은 오늘 화로 담당이다.

화로의 온도는 최고 1,200℃까지 치솟는다. 그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화재경보가 울린다. 유골을 냉각시킨 뒤 유골 모으는 작업할 때 온도는 100℃~150℃다. 폭염이 기승하는 뜨거운 여름이어도 두꺼운 방염복을 입어야 한다. 온도를 더 낮춘 뒤 들어가면 좋겠지만 다음 타임의 유족들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몸집 큰 분이 오면 시간은 거의 배 이상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도 화장터에서 소화할 수 없는 분이 오셨는데, 거의 4시간 이상 걸렸어요. 화재 위험도 있어서 곤란했던 경우예요. 대도시는 몸집이 큰 분이 오면 화장해주지 않기도 해요.”

코로나19 시절에는 쉴 새 없이 화장로가 가동됐다. 윤달이 와도 마찬가지다.

유골을 수습하면 수골실로 모신다. 유골을 모아 인식표 확인 후 보철물 등을 안내하고 보철물 등 인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은 유골을 모아 곱게 만들고 유골함에 모셔 드린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화장 절차는 끝이 난다.

김 주임에게 가장 특별한 순간은 음료수를 사 온 유족이었다. 거의 없는 일인데 고인을 잘 모실 수 있게 해줘 고맙다고 인사했던 분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이곳에 일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의 적고 많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대부터 100세까지 순서가 없죠. 대부분 자신의 슬픔에 빠져있기 때문에 누가 고맙고, 누가 괘씸한 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추모공원을 나간 뒤 몇 시간 뒤에 찾아온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죠. 그것도 고맙다고 말하면서요. 그때는 찡~ 했어요.”

또 하나 심적으로 어려운 건 슬픔이 밀려온다고 침울하게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무시간도 즐겁게 일하려고 애쓰는 편이다.

“사산아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슬픔은 또 다르더라고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내는 슬픔이 다른 것 같아요. 작은 관을 들고 하염없이 슬퍼하는 부모, 특히 아빠가 많은데요. 유골도 뼈가 자라지 않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슴이 무너지죠. 그 모습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원주 추모공원

대지면적 34,030m²
건축연면적
•화장시설 4.030m²
•봉안당 2,615m²

화장로 총 7기 (6기 사용)
고별실 4곳
유족대기실 6곳
매점과 카페

유족 대기실의 침묵

감정이입이 안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할 수도 없다. 빨리 안 모시면 뒤에서 기다리는 유족들이 또 늦어진다. 내 부모님 같아서 함부로도 못 한다.

가끔 관 속에 넣지 말아야 할 부장품이 들어있어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전자기기나 금속은 못 들어가는 데 안경, 시계, 인공 팔과 다리를 넣으면 화로 안이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연소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간중간 불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추모공원에는 사고사와 일반 병사, 변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 등 다양한 고인들이 오신다. 경험이 쌓이면서 잘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대하면 힘들다. 지금은 그나마 슬픔도, 놀람도 절제하려고 애쓴다.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업종으로 보면 노령화와 화장인구가 많아져 일자리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추모공원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죠. 장래를 보았을 때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화장장은 대부분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운영하니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인 셈이죠.”

2007년 강풀의 웹툰이 원작인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김만석 역을 맡은 이순재 배우가 상갓집에서 “세상에 호상(好喪)이 어디 있냐?”는 대사가 떠오른다. 아무리 장수를 했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슬프기 마련이다. 이청준의 장편소설 『축제』는 장례문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산 자들이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고인의 화장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추모공원 2층에 마련된 유족 대기실에는 슬픔에 겨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 진이 빠진 유족들이 맥없는 지푸라기처럼 흩어져 있다. 곧 그들의 세상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다.

스피커에서 화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 님의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족께서는….’

이 글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원주올림」에도 실려있습니다.

새내기 조리실무사의 하루

식재료 검수부터 배식까지, 급식실 2년차의 성장일기





장미진 조리실무사

나는 이제 2년 차에 들어선 새내기 조리실무사다. 8시까지 출근이지만 보통 선배님들은 훨씬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다. 우리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식재료 검수를 한다. 그런 날은 한 시간 일찍 출근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일찍 출근해야 마음이 놓인다. 식생활관의 하루는 식재료 검수부터 시작한다. 일찍 출근한 당번이 소독물을 받고, 오늘 사용할 물을 끓이고, 쌀을 세척해 밥솥에 나눠 담는다. 그날 사용할 조리도구들을 꺼내놓고, 장갑이나 토시 같은 빨래를 정리해 두고 나면 바로 식재료 검수에 들어간다. 처음 입사해서 당번을 할 때 뭘 해야 할지 잘 몰라 허둥지둥하고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빼먹기도 하는 새내기를 데리고 검수를 하는 선배는 일을 두 배로 해서 더 힘이 들었을 거다. 식재료 검수를 하는 장소도 학교마다 다른데 요즘 같은 추운 겨울, 더구나 추운 새벽에 복도에서 식재료 검수를 하자면 온몸이 추워 덜덜 떨린다.

내가 일하는 학교는 조리사를 포함해서 10명이 일하고 있다. 몇 해 전 한 국회의원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라고 비하해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우리의 정식 명칭은 조리사, 조리실무사다. 이모, 아줌마라는 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라는 편견이 담겨있다. 그러나 오전 시간 내에 수백 명의 밥과 국, 반찬을 요리하는 일은 기술과 숙련도, 속도를 보장해야 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와 위생적 조리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조리는 튀김, 야채, 밥, 조림, 국 순서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내가 처음 입사하자마자 맡은 메뉴는 튀김이었다. 치킨을 튀기는 날이었다. 나랑 처음 짝이 된 선배는 원래는 처음 들어오자마자 튀김 요리를 시키지는 않는데 워낙 신규 인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처음이라 무서우면 오늘은 뒤에서 지켜봐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줬다.

180℃가 넘는 기름이 끓고 있는 솥은 사람도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거기에 튀김 반죽을 입힌 재료를 넣다 보면 훅하는 열기가 얼굴을 덮치는데 그럴 때는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다.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이 급식 노동자의 산재로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튀김 요리를 할 때는 매번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산재를 생각하게 되고, 건강검진 때 촬영하는 폐 CT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일하고 생긴 변화다.

학교 급식실은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다. 매일 대량으로 조리하면서 함께하는 것의 힘을 느낀다. 몇백 명 분량의 식판을 매일 빼고 세척해서 넣는 일도, 메뉴가 많고 복잡해 이걸 어떻게 다 해내지 싶다가도 여럿이 함께 붙어서 결국 해내고야 만다. 함께하는 힘으로 우리가 일하는 급식실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내가 일하는 학교는 11시 50분부터 배식을 시작한다. 처음에 배식할 때는 학생들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해 주고 싶었는데 인사를 받아주지도 못하고 보낼 때도 많았다. 혹시나 음식이 모자랄까 봐 한 명 한 명 마음속으로 인원수를 세다 인사를 받아주는 순간 몇 명까지 세었는지 까먹어버리기 때문이다. 지금은 맛있게 먹으라는 인사도 해 줄 수 있다! 그날 맡은 메뉴가 맛있게 잘 된 것 같다는 선배들의 칭찬에는 집에 돌아와서도 뿌듯함에 붕붕 뜨는 날도 있고, 실수하고 부족한 날에는 의기소침할 때도 있다. 깨끗하게 청소가 마무리된 조리실 불을 끄면 정신없었던 하루가 마무리되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낀다. 새내기 조리실무사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간다.

낭만,
그 쓸쓸함에 대하여

글. (주)도서출판 이음
사진. 원춘식



나이가 들어갈수록 낭만이 그리워진다. 때론 눈물까지 찔끔한다. 추남(秋男)의 계절이라며 감색 바바리코트 깃을 한껏 세우고 구두코에 걸리는 낙엽을 툭툭 친다. 차를 끌고 낙엽이 깔린 빈 도로를 달릴 때 흩어지는 낙엽을 룸미러로 볼 때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 그 낭만의 주인공인 낙엽이 한순간 쓰레기로 변한다. 낭만이 씁쓸해지면서 낙엽 지는 거리에 서면 온통 일거리인 사람들이 있다.



낙하하는 예쁜 쓰레기

낙하(落下)하는 것 중 비를 빼고 나면 모두 쓰레기였다. 눈마저도 예쁘게 차곡차곡 쌓이는 예쁜 쓰레기였다. 「낙엽을 쓸며」, 「낙엽을 태우며」라는 세간에 떠도는 수필들은 제대로 낭만을 부채질한다. 그것이 직업으로 변한 순간, 낭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남는 건 근육통과 한숨이다. 거기에다 사람들 시선마저 예사롭지 않다. 젊은 환경미화원은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쓰고 쉼 없이 거리의 불순물을 쓸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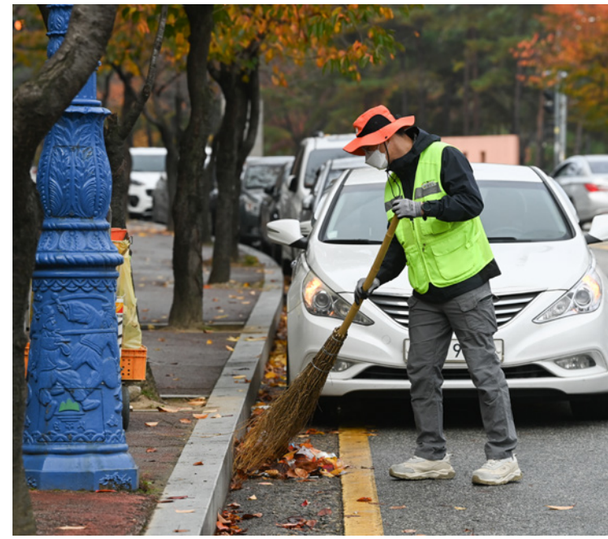
천사로 일대가 그의 영역이다. 늦은 오후부터 새벽까지 쏟아져 나온 청춘의 배설물들과 낭만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던 낙엽들이 거리를 메운 곳이다. 원주시 단계동 금불 사거리에서 백간공원 삼거리까지, 또 백간공원길에서 만나는 낭만은 그의 몫이 아니다. 그 낭만을 불사르던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어디론가 출근하기 전에 누군가는 이 볼썽사나울 수도 있는 지저분해진 낭만들을 치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몫이다.

지난 11월 말 오전 10시. 이른 아침 거리에 나선 박강남(39) 미화원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한 손에는 여지없이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과거에는 새벽부터 일이 시작됐지만, 환경미화원 사고가 잇따르면서 오전 7시로 시간대가 바뀌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오전 7시까지 나와도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기분 좋게 아침 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서두른다고 서두르지만, 가을 낙엽은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어요."

그의 영역은 밤과 새벽 사이 젊은이들이 누비던 거리다. 유흥거리는 아니지만, 식당가와 술집이 뒤섞여 있어 새벽이 되면 온전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그들이 들고 나온 것들은 대부분 거리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었고, 거리에 휴지통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전이다. 쓰레기들은 거리에 방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가 맡고 있는 일대는 도로여서 대부분 도로가로 쓰레기들이 모여들었다. 지나가던 차량들이 쓰레기를 가장자리로 몰아넣는다. 커피컵과 휴지, 담배꽁초는 기본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낙엽, 꽃잎은 전부 치워야 할 쓰레기라고 쓴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공단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가을 낙엽이 질 때 힘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눈은 그래도 제설 차량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만, 낙엽을 쓸어주는 장비는 따로 없으니까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우리 일이니만큼 쓰레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사람들은 쓰레기를 거리에 함부로 버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미화원 입장에서 차라리 눈에 띄게 버리는 것이 좋아요. 쓰레기를 꽁꽁 숨겨 놓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힘들기도 하죠."



청소부의 시간, 미화원의 시간

올해는 늦더위로 낙엽이 찔끔찔끔 지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차라리 왕창 떨어져서 며칠 고생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낙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낙엽을 쓸어야 하는가?'라고 묻기도 한다. 낙엽은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에 속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 미끄러질 수 있고, 빗물받이를 막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면서 낭만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지저분해지고, 쓸어야 할 쓰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5월에도 벚꽃 잎은 아름답기보다 쓸어버려야 할, 그저 쓰레기일 뿐인 거예요. 그런 정서가 때론 슬프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젊은 나이의 그가 이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고민은 없었을지 궁금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인식은 청소부를 낮게 보는 시선이 강하지 않던가.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일찍 취직했어요.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는데, 이 일이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은 사실 미화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저 청소부일 뿐이에요. 얼마 전, 교육받을 일이 있었는데, 친척 중 한 분이 '청소부가 무슨 교육을 받아?'라고 의아해하더라고요. 우리 나름대로 힐링캠프 교육이었는데, 아직도 청소부는 청소만 하는 줄 알아요. 아내도 제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안됐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열기를 이겨내면서 비질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봐요. 오죽하면 부모님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덥고, 가을에 낙엽과 전쟁해야 하고,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해야 하니 부모님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가치를 돈에 두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단 소속 직원이어서 정년이 보장되는 좋은 점은 있지만, 다른 일에 비하면 급여가 많지 않다. 그가 점점 이 일에 적응하면서 느낀 점은 좋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이었다.

"일이 몸에 적응되면서 딴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묵묵하게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만족하고 있어요. 건강한 삶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하고 뒤돌아보면 깨끗해진 거리가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젊음의 거리에서 만나는 것들

이 거리에서 쓰레기가 없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걸 바라지도 않는다. 술집이 모여 있는 단계택지와 봉화산 택지는 특히 더 바랄 수 없다. 컵라면 용기와 플라스틱병, 캔 등이 가을이면 낙엽과 함께 뒤엉켜 있다. 먹다 남은 음료 등은 허리를 굽혀 주워야 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다. 이제는 제법 이 거리의 상인들과 안면도 트고 지낸다. 인사도 해주고, 또 인사도 드린다. 가끔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분도 있다.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이 모두 안 좋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모두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의사는 의사로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나을 수 있고, 운전기사와 버스가 있어야 시민들이 편리하고, 누군가는 거리 청소를 해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일이 있듯이 모두 필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큰 틀에서 보면 누가 누구보다 못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는 천사들

영화 '퍼펙트 데이'에서 보여주는 주인공 히라야마가 떠오른다. 영화는 도쿄에서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는 히라야마의 반복되는 일상을 비슷한 구조로 반복해 보여준다. 아침 일찍 출근해 업무를 마친 뒤 퇴근하고 저녁을 먹은 뒤 책을 보다 잠드는 일상이다. 더구나 그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비춰지고 무시당하기 일쑤인 화장실 청소부다.

그러나 히라야마에게 모든 순간은 소중하기 그지없다. 그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나와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고 올드팝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숲속에서 햇살을 찍는다. 단골 식당에서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오늘 윌리엄 포크너를 읽은 그는 내일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를 읽을 것이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이라 할 수 있는 화장실이 그에게는 삶의 터전이다. 남들이 만지기도 싫어하고 지켜보기도 껄끄러워하는 그곳의 가장 낮은 부분, 보이지도 않는 부분까지 히라야마는 정성스레 어루만진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이 마지막으로 모여드는 이곳을 그는 깨끗하게 만든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기에 가장 넓은 시선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까지 전부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영화는 서열화와 비교, 남에 대한 무시가 당연해져 버린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

중국 철학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도가의 시조, 노자의 『도덕경』에는 '상선약수(上善若水)' 장이 있다. 상선약수 장에 이런 문장이 있다. '처중인지소오(處衆人之所惡)',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남모르게 도를 닦으며 인간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들이 아닐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하며 보람까지 느끼는 이들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깨끗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박강남 미화원은 오늘도 거리에서 누군가 버린 쓰레기를 치운다. 나무가 버린 쓰레기도 치우고, 사람이 버린 쓰레기도 치우고, 어디에선가 날아온 먼지도 치운다.

이 글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원주울림」에도 실려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마을버스를 타면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보인다

글. ㈜도서출판 이음
사진. 원춘식





새벽 4시 50분. 그의 눈이 자연스럽게 떠졌다. 세수하고 간단하게 요기를 한 뒤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원주시 단계동 집에서 출발해 종합운동장에 도착하면 오전 6시가 가까워 온다. 그곳에는 밤새 그를 기다린 2006호 누리버스가 있다. 지문 등록 후 시내를 빠져나가 국도 19호선인 충원대로를 타고 귀래까지 간 뒤 다시 지방도 531호선인 부귀로를 달려 사기막까지 한달음에 달려간다. 부론면 단강2리 사기막 마을은 부놋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부놋골은 긴 사기막 골짜기를 말하는데 예전 이곳에서 사기그릇을 구웠던 사기막터가 있다. 사기막 역시 옛날 사기를 구워서 사기막이라고 부른다.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사기막 마을에서 첫 운행이 시작된다. 봄의 절정이 마을을 감싸고 동쪽으로부터 햇살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6시 55분 첫차에 어르신들이 오른다. 이분들은 부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려 원주로 가는 시내버스로 환승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시간을 맞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부론면 행정복지센터에 오전 7시 35분쯤 도착해 승객들이 내리면 잠깐 쉴 수 있는 틈이다. 장용기(59) 누리버스 20번 기사님의 하루가 시작됐다. 부론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7시 50분 정각 출발이다. 버스는 사기막부터 정산리 일대 주민들을 태우고 부론까지 나오기 위해 사기막으로 향했다. 2020년 12월 27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 장 기사님은 36년을 공군에서 보냈다. 준위로 전역하기까지 병사들과 영외자를 담당하는 관리관으로 일했다.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나왔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굽은 길을 버스는 능숙하게 움직였다. 길가에서 밭일 하는 주민들도 반갑게 버스를 맞이한다."

장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출입문을 닫았다. 안말과 법천1리, 산수동 정류장에 이르자 남한강이 반갑게 맞이한다. 곳곳에 환하게 피어난 벚꽃은 눈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연한 연둣빛깔의 새싹들도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는 중이다. 멀리 강 건너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의 벚꽃 길도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남한강 따라 단강 길을 누리버스는 쉬지 않고 달린다. 이른 아침이라 사기막으로 향하는 손님은 없다.

"오후 시간이 되면 다시 마을로 들어가는 손님을 꽤 태우지만, 아침에는 거의 없어요. 시내 쪽으로 나오는 손님은 있지만요. 농산물이 쏟아지는 철에는 손님들이 복승아도 주시고, 고구마도 주셔서 먹을거리가 풍년이죠. 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을에서도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배려해 주세요. 겨울이 되면 많은 분이 눈 때문에 운전하기 힘들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마을에서 제설작업을 잘 해주세요. 혹시라도 제설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사무실로 보고하고, 사무실에서는 다시 시청 담당부서로 전화해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20번 누리버스는 어느덧 좁재를 넘어 법천3리를 지나 서작마을로 들어섰다. 서작(西作) 마을은 솔미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서작골이라고도 한다. 자작 서쪽에 있다는 뜻이다. 길은 계속해서 남한강을 따라 봄의 길을 달려 관덕정류장에 도착한다. 원주시 지명유래에 따르면 관덕(觀德)은 서작 북쪽 강가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정산 4리 2반에 있다. 관덕, 관득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을 지나면 남한강물이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므로 관덕이라 했다고 한다. '덕'은 '둑, 득'과 같은 말로 언덕이라는 뜻이다. 정산4리를 지나 재넘이정류장에서 조금 더 가면 아래술미를 만나는데 남한강과는 잠시 이별해야 한다. 정산교에서 오른쪽으로 버스 머리를 틀어 부귀로에 들어선다. 살구나무골과 정산리, 작실, 단강앞을 지나면 조귀농에 이른다. 조귀농마을은 조구랭이 마을이다. 단강리 벌말과 끝정자 사이 강변에 있는 마을로 조기동, 조귀동(早歸洞), 조귀농(早歸農)이라고도 한다. 유래에 따르면 작실과 함께 하천의 퇴적물로 형성된 지형이 마치 돌을 일어내는 조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남한강과 단강천의 합수지점이어서 경관이 일품이다. 버스는 곧이어 가늦개잠뱅이, 세포를 지나 하부론 회전교차로에서 본격적인 사기막 입구로 들어섰다.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굽은 길을 버스는 능숙하게 움직였다. 길가에서 밭일 하는 주민들도 반갑게 버스를 맞이한다. 좁은 길을 한참동안 달리던 버스는 잘 지어진 집 옆 골목에서 회차한다. 버스 안 시계는 오전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사기막에서는 8시 20분 정각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지금부터는 승객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어르신이지만요. 학생이나 아이들은 전혀 없어요. 있어도 좀더 큰 도시로 나가고 주말에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에는 이제 어르신들만 남아 있어요."

누리버스는 다시 온 길을 되돌아 나갔다. 아래사기막을 지나 동막골, 질골, 작실골, 상부론동, 부딴골, 평장개를 거쳐 다시 하부론 회전교차로에 다달았다. 온 길을 돌아나가는 데 단강앞 정류장에서 한 어르신이 정류장에서 일어나 손을 든다.

"어서 오세요."

장 기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어르신도 반갑게 인사를 한다. 박정숙(여·86) 어르신이다. 1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며 버스 시간이 있는데도 10분 전에 미리 나와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 사실은 15분 정도 기다렸다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한다.

"이 버스가 없으면 우리 동네는 어디 나가기가 부담스럽지요. 자식들이랑 함께 사는 사람들은 버스 탈 일이 크게 없지만, 우리는 버스 아니면 부론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워요. 아주 골짜기 마을은 택시비가 보조가 되니까 택시를 이용하지만, 우리 동네는 택시비 보조도 안되는 마을이거든요."

> "이 버스가 없으면 우리 동네는 어디 나가기가 부담스럽지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남산국민학교에 다니다 3학년 때 부론면 법천리로 이사를 왔다는 박 어르신은 시집을 부론면에서 더 시골로 왔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부잣집으로 알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은 완전히 선비였어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선비 남편 대신 제가 농사일을 배워서 지금까지도 농사를 해요. 오늘도 부론에 가서 직불금도 신청하고 밀린 비료 값도 줘야 해서 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없으면 나갈 엄두도 못내죠. 지금은 봄이라 지천에 꽃이 널려 있어 기분도 좋아요."

사기막을 출발한 버스는 어느덧 작실골과 상부론동, 하부론, 세포, 가늦개잠뱅이, 조귀농, 단강앞 정류장을 지나 작실마을회관까지 깊숙하게 들어갔다. 작실마을회관 앞쪽에는 강원도유형문화재 '송곡 이서우 영정각'이 자리 잡고 있다. 조선 후기 문신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 1633~1709)의 사당이다. 숙종 때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조선환여승람』에 남아 있지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1968년에 개축했는데, 이서우는 현종 때 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올라 정언·대사헌·관찰사·예문학제학·공조참판을 역임했다. 아름답고 섬세한 시문으로 유명하며 『송파집(松坡集)』이라는 문집을 남겼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송곡 이서우 탄신제를 봉행하는 날이라 버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바쁘다. 각계각층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화환들이 즐비했다.

작실마을회관을 돌아 나와 다시 주 도로인 지방도 531호선에 들어섰다. 정산리를 거쳐 살구나무골과 정산2리, 음지말, 거론, 중간말, 정산3리를 지나 버스는 거돈사지에 도착한다. 거돈사지 입구에 자리한 거돈사지 전시관은 옛 정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전시실과 명상실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고려불교와 거돈사의 역사와 유물, 옛 거돈사의 모형 전시, 명상실과 복도에는 거돈사지의 발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운동장 한쪽으로 당간지주가 자리 잡고 있다. 전시관 옆 도로를 건너면 바로 거돈사지다.



> "중간에 한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버스가 없어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거돈사지(居頓寺址)는 현계산 기슭의 작은 골짜기를 끼고 펼쳐져 있다. 1968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사적으로 지정됐다. 현재 남아 있는 3층석탑(보물)을 통해 신라시대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3층석탑과 금당터, 강당터가 남아 있다. 절 뒤편 언덕 위에 지금은 경복궁으로 옮겨진 원공국사 승묘탑이 있던 자리가 있다.

거돈사지까지 들어갔던 누리버스는 다시 차를 돌려 나오다 정산3리에서 젊은 외국인 승객을 태운다.

"요즘은 농촌 어디를 가나 젊은 외국인을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정산교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른 한 어르신은 원주까지 가야하는데 버스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버스가 오후 3시 20분이나 되어야 있어요. 중간에 한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버스가 없어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일요일에 성당에 나갈 때도 꼭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가 없으면 종교 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버스는 다시 솔미마을과 재넘이정류장을 지나 남한강을 따라 부론으로 향했다. 봄 햇살을 받은 남한강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누리버스와 비슷한 파란색 버스가 강 건너 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저 버스는 경기도 여주 마을버스예요."

서작과 관덕정류장, 법천3리, 좁재를 넘어 산수동에서 왼쪽으로 머리를 틀어 부론 시내로 향했다. 부론 시내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내릴 준비를 한다.

"원주 나가는 버스가 갔으면 어쩌지요?" 정산교에서 버스에 오른 어르신의 걱정에 장 기사님이 친절하게도 "버스 아직 안 왔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누리버스가 지정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쯤 멀리서 파란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저 버스는 또 어르신들을 태우고 원주까지 쉼 없이 달릴 것이다. 아름다운 단강 길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마을버스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 누리버스의 존재 이유기도 했다.

'배려는 작은 행복. 차량 내 교통 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마을을 누리는 '누리버스'는 오늘도 원주 지역 곳곳을 누리고 있다.

이 글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원주울림」에도 실려있습니다.

시간을 잇다 다음을 품다

김익주 원주YMCA

원주YMCA는 50년 동안 지역 사회 발전의 중심에서 청소년 리더십 개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설립(1973.12.03) 이후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으로 환경 보호, 인권 증진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원주YMCA가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교육, 취업·진로, 주거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며,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주YMCA는 조직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와 청소년·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주YMCA는 5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일관된 비전을 통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50년을 위한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주YMCA 비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10대부터 50대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원주YMCA 실무자, 간사, 이사가 포함된 12명으로 구성된 비전 특위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세계 YMCA 추세, SDGs의 이해, 원주YMCA SDGs 범주화, 원주YMCA 비전에 대해 교육 및 토론을 하여 원주YMCA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특위는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담고자 하였고 그것이 비전 선언문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전 선언문은 원주YMCA가 추구하는 '인권 친화적이고 차별 없는 건강한 삶',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인프라 구축', '지구와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평화적 연대와 포용적 의사결정'을 포함했습니다.

네 가지 목적 내용에 세부 목표를 정하고 실천 과제를 만드는 과정과 원주YMCA 회원, 실무자, 이사 및 임원이 함께한 비전 선포식은 비전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성장하는 원주YMCA가 되고자 다짐하는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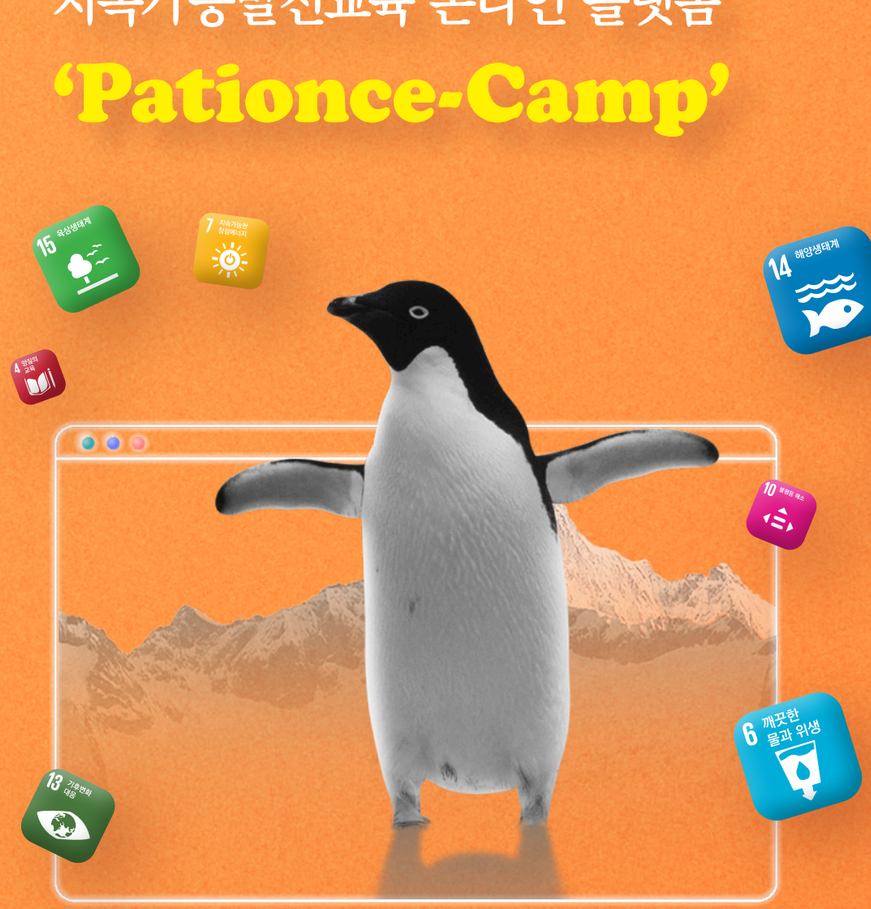
원주YMCA는 비전 선언문이 단순한 목표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평가지표는 각 기관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핵심 가치 실현 활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평가지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검토의 균형을 맞추어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각 핵심 가치(사람, 번영, 지구, 평화)에 따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평가 항목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 횟수, 참여도, 에너지 사용량 등의 요소는 수치화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 검토 등의 정성적 검토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 참여자 만족도,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 등은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질적으로 평가됩니다.

평가의 단계적 절차는 데이터 수집, 정량적 평가, 정성적 검토, 평가위원회 운영, 피드백 제공, 사업계획수립,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주YMCA는 이처럼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통해 비전 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고자 합니다. 평가지표는 비전 선언문을 실천 가능한 목표로 전환하는 중요한 도구로, 원주YMCA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길에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원주YMCA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리더십, 진로 탐색,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시민들을 위해 환경 보호, 인권 증진, 평화 실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것이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과 정책 제언 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연결고리, 지속가능발전교육 온라인 플랫폼 ‘Patience-Camp’



지속가능발전교육 온라인 플랫폼 ‘Patience-Camp’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에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남극을 횡단하던 인듀어런스호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 봅니다. 얼음 속에 갇혔지만 634일간 생존한 그들의 여정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돌아온 놀라운 사례로 기억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불평등, 민주주의 후퇴, 노동의 불확실한 미래는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매력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학습자가 환경, 사회, 경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기존의 인식 전환 중심에서 행동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UNESCO)는 2019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 틀로 ‘ESD for 2030’을 발표했으며, 이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ESD for 2030’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글로벌 로드맵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행동 중심의 변화를 유도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ESD for 2030’의 다섯 가지 우선 과제에 주목합니다. 이 프레임 워크에서는 교육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하고, 정부, 학교,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환경도 중요한 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을 모두 포함해 학교 커리큘럼과 학습 환경에 통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울러 교사와 교육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자 역량 강화와 함께 청년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끌며, 청년 주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장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ESD for 2030’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향한 다양한 노력이 SDGs의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습자가 동등하게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드디어 우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온라인 플랫폼이 문을 엽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플랫폼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학습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스스로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창의적 접근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여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접근성과 포용성을 위한 연결고리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과 포용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각 지역과 학습자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설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설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커리큘럼 구성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각 주제별 교육과정을 통해 SDGs 지역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협력과 연대를 위한 연결고리

우리는 현재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플랫폼은 이러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와 학습자가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플랫폼은 지역 문제를 학습의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와 지역사회의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여와 행동을 위한 연결고리

지속가능발전교육 플랫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혁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학습자들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자들이 단순히 문제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변화를 위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약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함께 행동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극 탐험대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은 그 여정을 위한 나침반이자 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학습자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SDGs의 지역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합니다.

아이 곁에 교사가 있으려면

강삼영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

지난번 산책길에 아이들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 출근길 최신식 감 장대를 차에 실었습니다. 교실에 올라가니 먼저 학교에 온 아이들이 교실 바닥에 엎드려 놀고 있네요.

"현수, 너 어제 도서실에서 다쳤다며?"

오른쪽 귀밑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반창고가 귓불을 덮고 있습니다.

"안 아팠어? 아파서 울었지?"

"당연히 울었어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곧 학교 버스가 들어오고 아홉 명의 아이가 다들 모였습니다.

"얘들아, 산책하러 가자. 지난번 따지 못했던 감 따야지."

신발을 갈아신고 운동장과 주차장을 지나 뒷산 아래 모였습니다. 남자애들은 다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애들은 왜 안 보여?"

"조금 있으면 손잡고 올 거예요."

2년째 같이 사는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자기들만의 관성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여자애들이 저쪽에 보입니다.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넷이 딱 붙어서 걸어옵니다. 차에서 감 장대를 꺼냅니다.

"선생님은 준비물을 잘 챙기네요. 기수는 안 챙기는데"

상수가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의 기준은 늘 자기 반 담임인 김기수 선생님입니다. 7일간 함께 지내면서 늘 들었던 말이 '기수쌤은 이렇게 했는데' 였으니까요.

산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 일이 벌어집니다. '나 안가' 하며, 정우가 교실로 뛰어갑니다.

"상수가 쿵푸팬더라고 했어요."

몸집이 좋다고 판다곰이라고 해서 삐친 거지요. 여덟 명의 아이는 산책하러 가는데, 정우는 '길잃은 양' 신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한테 가서 사과하고 데리고 와."

정우 쌍둥이 누나 지우가 똑 부러지게 말합니다. 그러자 상수는 내 얼굴을 봅니다.

"그래, 가서 데리고 와라.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교실로 뛰어가더니 혼자 돌아옵니다.

"혼자 있고 싶대요."

정우도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다들 나를 걱정한다면 오늘 산책은 무효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면 나만 두고 산책하러 간다는 건데.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산책을 따라간다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지. 친구가 데리러 왔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갈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도 생각이 깊어졌어요. '산책하러 갔는데 혼자 있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우는 더욱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겠지요. 교사가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문득 김기수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졌어요.

"얘들아, 산책을 포기하고 교실로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우리끼리 다녀와야 할까? 김기수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 거 같아?"

"당연히 산책하러 가야죠. 정우는 혼자 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빨리 가서 감만 따갖고 오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녔나 봅니다. 그렇게 감을 따 아이들 손에 하나씩 쥐여주고 돌아오는 길, 정우는 놀이터에서 씩 웃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면 25년 전이 되나요. 그때, 삼척초등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 담임을 했습니다. 1학년 여덟 살 서른일곱 명, 상상을 해보셔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3월 2일 입학식을 하고 교실로 데리고 들어와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부르는 자기 이름을 듣고 '네'하고 대답하는 것이 여덟 살 아이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글자와 숫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배우고 익혀 삐뚤빼뚤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을 잊지 못해 아이들이 쓴 글과 그림을 모아 만든 <사랑반 아이들>이라는 문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강릉 ○○초등학교에서 2학년 아이들과 7일 동안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연가를 내서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25년 전을 떠올리며 출석을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이름을 부를 거야. 이름을 부르면 '네'라고 대답해 주면 좋겠어. 자 시작한다."

또박또박 이름을 불렀습니다. "송미현?" "네", "김대한?" 만화책에 빠져있던 대한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아주 아주 작은 목소리로 "김대한?" 대한이가 깜짝 놀란 듯이 고개를 들고 "네" 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나 봅니다. 수라는 조용하게 대답하고, 상수와 재섭이는 크게 대답합니다. 지우와 제이는 씩 웃으며, 정우와 현수는 귀찮다는 듯 새침하게 말합니다.

다시 느낍니다. 정말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릅니다.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어려워하거나 글자나 숫자를 아주 엉뚱하게 쓰는 아이가 있다면 옆에 앉혀 차분하게 일러주면 좋겠는데, 그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에게 집중할 틈을 다른 아이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 더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선생님은 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약 2% 수준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미국 15%, 스웨덴 13%, 영국 12%, 일본 6.5% 등)에 견줘 너무 낮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맞춤교육, 포용 교육, 개별 지원교육을 가장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를 돌아보면 특별한 교육적 처방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급마다 특별한 돌봄과 배움이 필요한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담임교사 혼자서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도 사람인지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머물 수 없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아이를 내버려 두고 다수의 아이 곁에 있는 것도, 그 반대의 상황도 최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교실에는 스무 명이 넘은 아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부모나 교사를 탓하지 않고, 교육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면, 우리의 교육적 역량을 선생님이 아이들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데 써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의 범위를 전체 학생의 10% 이상 늘리고 많은 예산과 자원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맞춤형 지원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강조했던 그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덴마크 최고의 전환 인생학교입니다"

Folkehøjskole-Bosei Sports College

윤민재





Denmark

Education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올해 1년 휴학을 했다. 졸업하고 무얼 할지 불안한 상태에서 대학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두려웠고, 내년에도 똑같은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불안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선택지들을 넓히고 싶었다. 부모님의 조심스러운 제안이 있었다. "덴마크의 폴케호이스콜레를 다녀오는 건 어때?" 폴케호이스콜레(Folkehøjskole)는 삶의 전환과 민주적 교육 및 훈련을 주된 목표로 하는 덴마크의 성인학교의 한 형태이다. 덴마크에는 약 70개의 폴케호이스콜레가 있으며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살고, 먹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작은 규모의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내가 원하던 것들을 경험하기에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게 된 Bosei Sports College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흘렀다. 이곳에서 느낀 감정들과 보고, 생각하고, 고민한 다양한 주제 중 '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누군가 내게 덴마크 학교에서 무얼 배웠냐 묻는다면 나는 잘 노는 법을 배웠다고 답할 것이다, 보세이를 다니면서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은 '왜 이렇게 노는 데에 진심일까?'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교, 마을 전체가 노는 데에 진심이다. 맥주 파티를 하면 바에서 술을 나눠주는 친구들은 맥주 모양의 모자를 쓴다. 핼러윈이 다가오면 우리가 직접 작은 마녀 모자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꾸미고 밥을 먹는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분장하고 준비한 담력 체험도 열리는데 선생님들도 빠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나에게는 교수님이 코스튬을 입고 같이 춤추며 논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학생회를 해본 사람만 해도 알 것이다. 작은 행사 하나 준비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지 말이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눈에 띄는 교육적인 목적도 없다. 그냥 노는 것에 그렇게까지 진심이라고? 처음엔 심지어 학교가 우리의 교육에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그냥 놀게만 하니까.

하지만 계속 '왜지?'하는 의문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관찰한 결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잘 노는 것이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나와 다른 모습을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곧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그래서 이곳의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어른이 될지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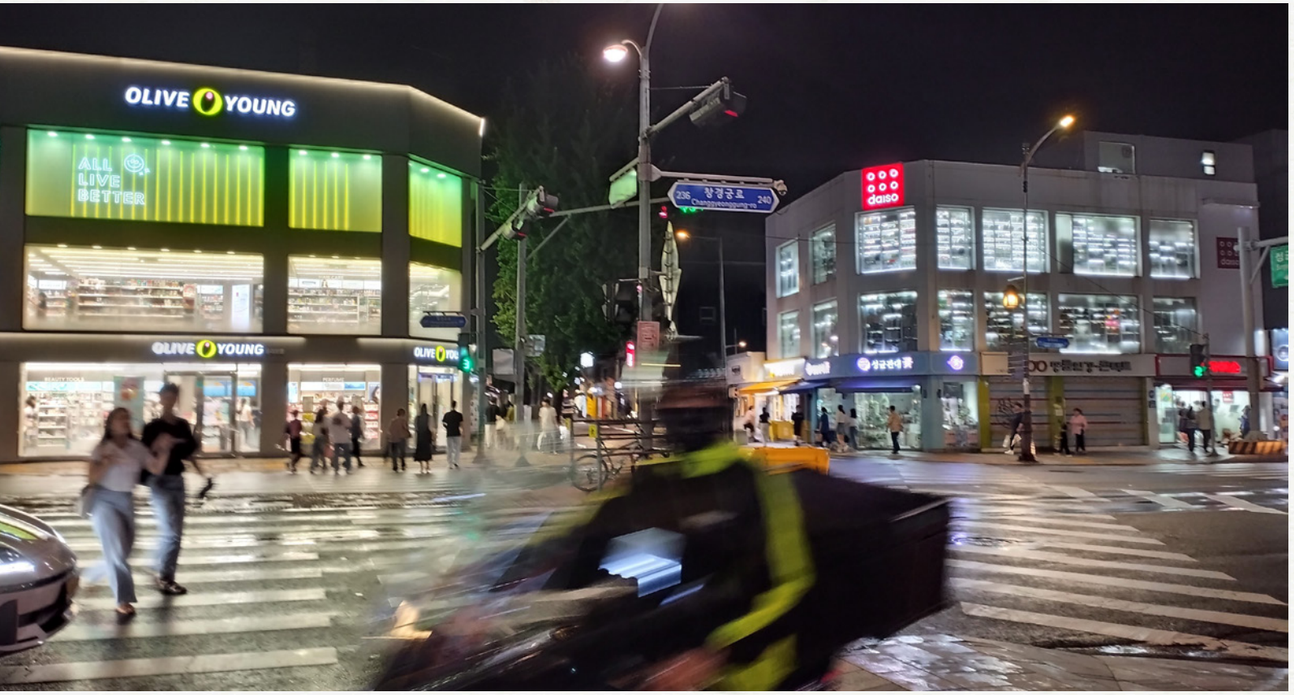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곧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그래서 이곳의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어른이 될지 기대가 된다."

이곳의 교육은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다. 한국의 좁은 범위의 교육과는 다르다. 한국에서는 학과 행사 하나만 하려고 해도 뚜렷한 교육적 목적이 필요하다. 나는 사회학과를 다니는데 우리 학과의 경우 "사회학적 상상력"이 주된 행사의 키워드였다. 이런 좁은 나의 시각으로는 이곳의 넓은 교육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어쩌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 배우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 이러한 배움은 이곳에서 하루하루 삶의 교육을 통해 나에게 천천히 스며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은 모든 면에서 자유롭다. 한국에서 친구가 잠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케이크 만들기 대회가 열렸다. 재료들이 놓여있고 아무런 레시피나 제한 없이 그냥 같은 팀끼리 의논해서 만드는 모습을 보고 친구가 '너무' 자유로워서 놀랐다고 했다. 삶을 가르치는 교육에서는 레시피나 시간제한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즐기며 하나의 케이크를 만들어 내는 경험이 중요한 교육적 철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덴마크의 교육이 아이들을 방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하게 하지, 인턴 경험을 시키지'와 같은 것들일 것이다. 개인의 시간과 국가의 재정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덴마크가 정말 아이들의 삶과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생각해 볼 시간을 보장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이런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국이 청소년과 청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나의 친구들과 모든 청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한다.

"함께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즐기며 하나의 케이크를 만들어 내는 경험이 중요한 교육적 철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차이를 존중하는 것, 현지 문화 이해 도움

알비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몇 년 전, 음악과 드라마를 통해 이 나라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모든 특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네온 불빛으로 가득한 밝은 거리, 향긋한 길거리 음식,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방과 수많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역동적이고 바쁜 분위기가 흐르고, 한국이 자랑하는 빠른 교통과 초고속 인터넷 덕분에 삶이 편리하고 빠릅니다. 한국은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고려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무료 화장실이 있고, 언제나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운 음식이 일상생활의 일부이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매운맛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매운데 맛있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게 된 것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짧고 여행이 매우 편리한 나라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어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죠.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차로 6일, 비행기로도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거리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걸 실감합니다.







외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외모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남자들은 외모보다는 힘과 성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상처나 흉터가 오히려 멋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남자는 원숭이보다 조금 더 잘 생기면 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이상적인 외모는 작은 얼굴에 뚜렷한 이목구비와 밝은 피부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타는 피부를 선호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피부를 보호하려는 문화가 발달했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과 봄은 마스크가 일상이 된 시기였습니다. 마스크는 건강을 위한 배려로 여겨지며, 외출 전에 공기 질을 항상 확인하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연말과 새해를 생각할 때, 저는 다시 한번 러시아에서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새해는 항상 가장 중요한 가족의 행사였고, 12월 한 달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해가 오면 마법처럼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아요. 또한, 1월 7일에 기념하는 성탄절은 이 차가운 겨울에 더욱 따뜻하고 아늑한 기분을 주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새해를 음력으로 기념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느꼈던 그 겨울의 축제 분위기가 조금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한국도 춥지만 눈이 없으니 그 특별한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기는 어렵죠. 눈 덮인 풍경과 발밑에서 나는 눈 밟는 소리가 그리운 순간입니다.

사회적인 규범도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인이 자리에 다시 앉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럴 때는 그냥 자리를 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한국에서는 언어와 소통 방식이 훨씬 더 형식적입니다. 나이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름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직책이나 칭호를 사용하죠. 반면, 러시아에서는 나이가 친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나이가 다른 사람들과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차이가 1살만 나도 장벽이 될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러한 전통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응은 매우 풍부하고 놀라운 과정입니다. 저는 언어를 배우고 인내심을 키우며 점차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게 이곳은 우연히 온 곳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발견과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

숨지 않아야 트이는 길

추인애



벌써 2024년이 끝나가고 있다. 내 21살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거라고 16살의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체감상 21살의 1년은 16살인 나의 5개월쯤 되는 속도로 지나갔던 것 같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이 체감하는 시간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내가 꽤 많이 행복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16살, 그러니까 2019년의 나는 사람이 어떻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한창 놀라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보통의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다. 그때의 나는 매일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했지만, 이제야 나는 과거의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 "죽지 않아 줘서 고마워, 거기서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하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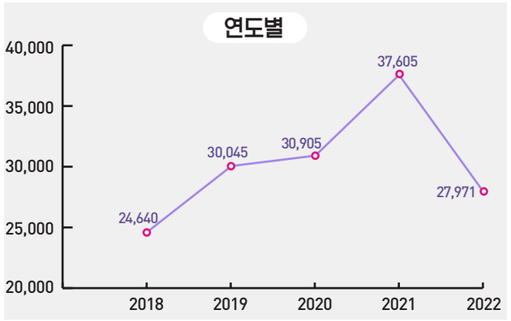
기억도 나지 않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 나는 입양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마 5살 때쯤이었던 것 같다. 나를 매일 때리고, 폭언을 일삼던 어머니가 어린 나에게 너는 입양아라며 알려주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나 보던 그런 감동적인 장면은 전혀 아니었다. "같은 피가 흐르지 않아도 엄마는 널 가슴으로 낳았고, 사랑하고 있어." 같은 대사 또한 없었다. 우리 어머니는 내게 "너는 입양아야. 계속 이렇게 말 안 듣고 사고 치면 널 파양할 거야. 부모 없는 고아로 네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어린 마음에 나는 무서워서 부모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기억이 있다. "제발 파양하지 말아 주세요. 고아가 되고 싶지 않아요."라며. 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 집안에는 이유를 알기 어려운 스크래치들이 자주 나곤 했다. 엄마의 구두 굽에 깊은 반달 모양의 파임이라든가, 식탁을 덮고 있는 네모난 강화유리에 포물선으로 그어진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스크래치들을 세 자녀 중 하나가 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 세 남매를 함께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누군가 솔직하게 말하기 전까지 다 같이 혼나는 거란 말과 함께 어머니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이 상황을 빨리 일단락 짓고 싶은 누군가가 패배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주로 이 시스템에서 패배하는 아이였다. 오빠와 남동생과 함께 맞다가, 너무 힘들어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며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집안의 많은 물건에 고의로 스크래치를 만들고 다니는 미친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런 집에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리진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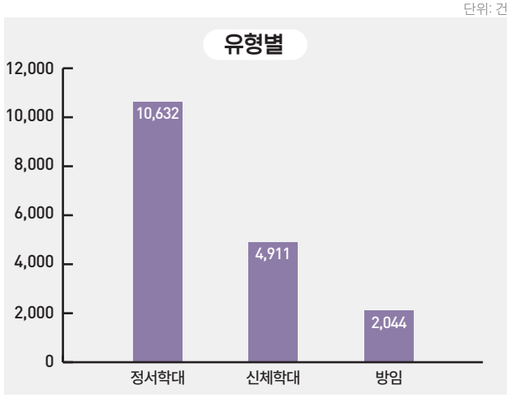
부모님은 내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이혼하셨다. 생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반항할 용기를 내서 두 분이 이혼하시면 아버지를 따라가서 살겠다는 말을 작게 내뱉었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맞는 빈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했다. 삼 남매 모두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집안일은 모두 동생과 내가 도맡아 했다. 아버지는 일이 바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고, 오빠는 부모님께 배운 건 이런 것밖에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 동생과 나를 때렸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는 것에 지친 나는 진심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계획했다. 아버지에게 최대한의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싶었기에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봄, 내 생일에 자살을 계획했다. 오히려 죽음을 결심하니 한결 후련한 기분으로 일상을 보냈던 것 같다. 오빠는 거의 매일 동생을 때렸고, 나는 매일 자해를 했다.

아동학대건수 2만 7,971건(2022년)

단위: 건



단위: 건







그냥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어느 날 동생이 자신을 때리던 오빠에게 반항했다. 여러모로 약했던 동생이 오빠에게 악을 쓰며 반항하는 것을 보니 무기력하던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동생을 내 방으로 끌어들이고 오빠가 등교할 때까지 기다렸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만 뚜렷하게 머릿속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나는 한동안 담쌓고 지내던 학교의 wee클래스에 찾아갔다. 많은 전학을 다니는 동안 여러 학교의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해도 내가 집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상담을 찾아가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어째선지 정말 마지막 딱 한 번만 학교의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그날은 누군가 날 도와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과 집을 나와야 한다는 하나의 의지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동생과 나를 즉시 집에서 분리해 주셨다.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자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들었다. 이렇게 빨리 집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왜 이전의 나는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었을까, 왜 이제야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오랫동안 찾아다녔다. 네이버의 검색창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검색한다거나, 아동학대의 정의를 살피며 내가 겪은 것이 학대인지 아닌지 한참을 고민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며 '숨지 않아야 트이는 길'을 썼다. 누군가 네이버에 아동학대를 검색한다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내 이야기를 보고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랐다. 물론 지금의 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이따금 하곤 한다.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지도 않고, 부담이 훨씬 큰 것도 사실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갈 나를 상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하루를 알고 있다. 일상이 참 힘들고 바빠도 평범한 '힘듦'이 '죽고 싶다'로 직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화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젠 행복한 삶을 알고 있다. '평범한 하루'를 알게 되었다.

누구보다 빛나는

나에게 쓰는 편지



너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살면서 얼마나 될까?
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써보고, 자립해서 나와서 써보는 건 처음인 거 같네.
그전부터도 사실 너에게 편지를 잘 써주지는 않았던 거 같아. 편지 받고 싶었니?
너의 편지를 받고 싶었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 같기도 하네. 미안해.
널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서.

빚누리 요새 이겨내느라 힘들지?
너를 에워 싼 아빠와 그 사람의 강압의 시간들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워서 힘들 거고,
경제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허무해도 다시 시작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 보다 뒤처진 거 같아 힘들 거야.
무엇보다 엄마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냈다는 게 아직도 네탓 같아서 많이 힘들 거야.
내가 너이고 넌 나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너는 그 여린 마음에, 결국 아빠를 고소도 못 했어.
쉼터에서 고소한 그 사람에게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으로
너의 그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벌이 정해진 게 너무 억울하겠지.

근데 있잖아.
너 큰일 겪은 범죄피해자의 자살유가족인 거 치고 되게 씩씩하게 하루하루 잘 해내가고 있어.
포기하지 않고 죽기보다는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적처럼 잘 해내고 있어.
과연 넌 엄마 딸답게 잘해나가고 있어.
난 분명 잘못된 씨앗에서는 잘못된 열매가 나올 거라고 믿고,
그 사람과 아빠는 너의 복수심이 아니더라도 분명 하나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삶에서, 죽어서라도 죄 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복수와 원망 어린 마음보다는
이제라도 너를 좀 더 알아주는 삶, 하루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볼까 해.

감사하며 숨 쉬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절대 뒤처지지 않았어.
내가 앞으로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넌 절대 뒤처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죄짓는 삶을 살지 않고 힘들더라도 다르게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은 한 넌 이미 승리한 거야.
엄마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 많이 힘든 마음도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사는 걸로 대신 갚자고 마음먹었던 거 기억하지?
그거 잊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고 복합적인 여러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너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너 자신에게 말 해줘도 돼.
네가 점점 괜찮아져야해. 스스로 괜찮아져야 너의 세상도 있는 거야.
비록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힘의 원리에 당했더라도 넌 정말 지금도 소중한 사람이야.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인생에서 빛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이 말을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 꼭 해주고 싶었어.
수고했다 지금까지. 하지만 앞으로도 더 힘내서 수고해 보자.

사랑한다. 누리야.

- 2024.10.03 누리가 누리에게.



도시와 관계 맺기

김병재 어반마이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해요. 내가 이런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2008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전망대에서 여행의 첫 새벽을 맞이하던 중에 우연히 지나가던 출근길 복장의 한 여성이 정말 행복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었다. 나는 그때 모습이 생생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이 품고 있는 도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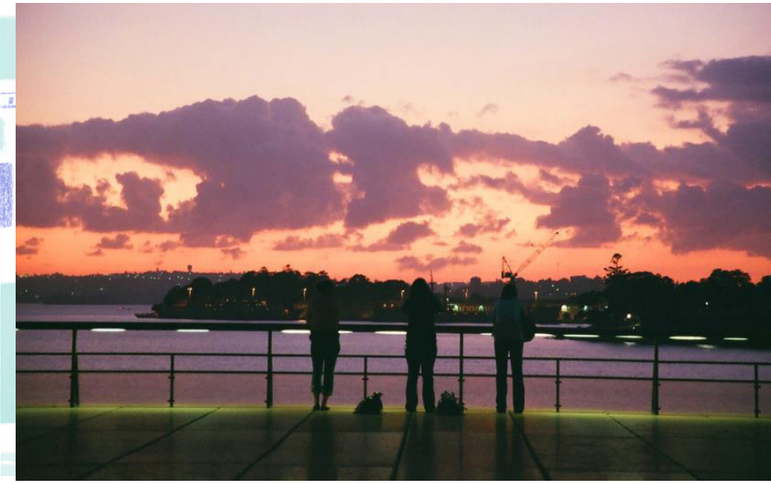
가끔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애써 좋은 평을 할 때 “살아보면 살만합니다.” 정도이다. 아쉽게도 이 말의 앞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많지만…’이라는 뜻을 생략하고 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감동이나 예찬보다 도시의 결점 속에서 내가 사는 당위성을 위해 긍정적인 것을 찾아 전달하려 노력한다. 사람들은 도시에 대한 애착을 잃어가고 내 삶과 도시는 각각 타자로서 바라보기만 하게 된다.

우리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과는 별개의 공간들로 채워진 도시에게 소외되어 살아간다. 도시의 건물은 거대해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소소한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걷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는 길에서도 사람보다 자동차가 주인공이다. 내가 손길, 애정을 담아둘 자리는 도시는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도시는 넓지만 내 삶을 누리는 공간은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쉬는 집뿐인 것이다. 그 외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 속에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간은 내가 일하는 공간 직장,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 집 외에 또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다. ‘제3의 장소’라고 불리는 이곳은 직장과 집이라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공간이다. 그곳은 나의 일상 건너편 다른 세계로 접어드는 곳이고 일상의 무게, 복잡함을 걷어내고 정서적 편안함을 가지는 곳이다. 최근의 말로 하면 ‘최애의 공간’일 것이다. 그곳은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술집이나 동네서점이 될 수도 있다. 길이나 그냥 특별함이 없는 곳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곳은 늘 그 자리에 있고 그곳에 있을 때는 정서적 위안을 가지게 된다. 모두에게 특별하지 않지만, 공간과 관계 맺은 사람에는 특별한 곳이자 장소로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도시의 거대한 시스템에서는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부분이지만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와 함께 도시에 대한 기억과 소속감, 유대감을 형성해 주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을 남긴 도시라면 그 중심에는 ‘제3의 장소’를 떠올릴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원주에서 공간과 도시에 대한 문화 및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공간의 쓰임을 위해 다양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면 2021년부터는 공간과 도시에 대해 사람들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에 주목하였다. 앞서 이야기한 타자적 모습의 도시를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끌어드리고 각자의 장소가 풍족해지는 도시를 꿈꿨기 때문이다.







2021년 도시 문화축제 ‘닷닷다앗’에서는 원주 학성동의 희매촌(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구도심의 마을), 댄싱공연장(초기 계획에는 폐역이 된 원주역과 주변 일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대체), 원주천과 아카데미 극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댄싱공연장과 아카데미 극장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던 공간이 아니었기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용을 위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설득과 협의, 기본적인 시설 정비와 설치.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도시에 이 모습을 담고 싶었던 것은 ‘해도 돼요’라는 메시지였다.

도시 속에 두려움, 불편함의 장소에는 반대로 어떤 이색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채우고 사람들이 모이거나 거니는 공간이면 언제든 공연이나, 전시, 또는 우리가 처음 보는 다양한 문화적 행위들을 만나게 되는 것. 우리 자신도 좋은 것은 알지만 도시가 가진 사회적, 제도적 제약, 그리고 ‘해도 될까?’라는 잠재적 제약을 걷어내고 싶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경험함으로써 우리 도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어쩌면 문화적 활동을 위해 전시관이나 공연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보다 도시 어디서나 이런 활동을 해도 되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더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옛 원주여고 진달래관의 모습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자 누구든 채워갈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랐다. 2021년까지 공간을 1차로 조성하고 2022년은 공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었다. 당시의 공간은 완성된 공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완성하고 잘 차려진 공간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다듬은 공간 그리고 앞으로 채워가야 할 공간의 시점에서 사람들과 만났다. 앞으로 이곳을 방문할 사람들이 채울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완성되지 않았던 공간을 위해 준비했던 프로젝트는 도시가 학교-공간기획반 프로젝트이다. 이 과정은 진달래관 2층의 공간을 약 6개월 동안 참여자들이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 브랜딩, 운영까지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그동안 기획하였던 참여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길고 가장 많은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었다. 참여한 사람들도 다양했다. 디자이너, 건축가, 대학생, 자영업자, 사회복지사, 문화 기획자 등 다양하였기에 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다양한 시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간에 대해 각자의 바람이 있었고 그 바람을 하나의 바람으로 조율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고민과 손길이 담겼다. '칠칠다락'이라는 공간의 이름부터 소품 하나까지 그들 의미로 채워지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을 이용할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용 방식에 운영 규칙을 조율해 가는 과정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기획반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공간이 아닌 그 공간을 자신의 공간이자 우리의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다. 공간이 완성된 후 나도 한 명의 방문객으로 자주 찾던 장소가 되었다. 그 공간이 멋지거나(우리에게는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화려한 공간이기보다는 앞으로 멋지게 가꿀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제3의 장소'는 스펙터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잔잔하고 긴 시간을 자주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의 나는 다음 연도에 공간기획반에 의해 가꿔져 모습과 공간이 활용될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이렇게 멋진 도시에 살고 있어서 행복해요"

최근 2021년부터 도시예술, 도시문화, 문화공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이다. 이런 질문을 받는 이유는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 사용하기 힘든 곳에서 수고로움이 가득한 과정을 거쳐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심이 가득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욕심 때문인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늘 프로젝트에는 욕심이 담겨 있었고 그 욕심을 담은 나의 답은 '제가 이런 모습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서요.'이다. 내가 해왔던 도시에 대한 프로젝트는 내가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길을 걷다 예기치 못한 낯선 것(공연, 전시, 거리의 상점 등)을 만나고 내가 머물 수 있는 '제3의 장소'가 있는 도시에서 내 삶을 담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도시를 방문한 여행객에게 "이렇게 멋진 도시에 살고 있어서 행복해요"라는 말을 건네는 일상 속의 나를 만나고 싶었다.

예술인의 삶과 SDG 1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SDG 16

김선애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에 문화예술계는 축제 분위기로 들떴다. 불꽃이 터지는 순간은 잠시임을 알기에 마음을 다해 기쁨을 나누었다. 어떤 소식은 좀 더 파장이 커서 국가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2011년 1월 29일 고(故) 최고은 작가(당시 32세)의 고독사 소식이 그것이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1층 방입니다.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저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 2월 중하순에는 밀린 돈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기세 꼭 정산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작가가 문 앞에 남긴 마지막 쪽지

고(故) 최고은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영화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이었으며,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췌장염을 앓던 중 수일째 굶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들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해 11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다음 해인 2012년 11월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13년이 지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여러 부처의 노력으로 제도 보완 및 복지사업 강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예술인은 여전히 사회보험제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한국의 사회보장 범주는 사회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구성되는데, 모든 범주에서 예술인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예술인 가구 총수입은 연간 3,972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같은 해 통계청 소득 조사 기준 전국 가구 소득 6,125만 원 대비 2,153만 원이 낮은 수치이다. 예술인 가구 중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는 25.7%로 이를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 가구 4.1%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의 예술인이 빈곤선 이하에 있으면서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통한 개인 수입이 연간 694만 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예술인은 생계를 위해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을 많이 하며,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K-SDG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는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술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서로의 거리는 왜 이렇게 멀까? <SDG 1. 빈곤종식>과 <SDG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측면에서 질문을 해 본다.

예술인의 삶과 SDG 1

예술인은 왜 일을 해도 가난할까? 고(故) 최고은 작가의 메모에 나오는 '밀린 돈'이라는 말이 문화·예술 노동시장의 허술한 제도적 상황을 가늠케 한다. 또한 예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정적인 소득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도 예술은 자본적 가치보다는 미학적, 정신적 가치를 강조해 왔고, 예술을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술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예술인은 생계를 위해 다양한 직업을 병행하는 N잡러로 살아가는데, 이 또한 예술 작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고정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근로자 중심의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통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라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술인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을 해도 가난한 예술노동 환경만도 힘든데, 고용보험, 연금 등의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어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많은 것이다.

비단 예술인뿐일까? 한국은 IMF 이후 노동 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근로계약에 근거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일거리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달원, 육아도우미, 강사, IT 개발자 등 '플랫폼 종사자'가 있는데, 이들 역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최근에 와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도 무너뜨릴 만큼 변혁적 세상을 열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환경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예술인과 같은 기존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제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해 왔지만, 제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고(故) 최고은 작가의 고독사를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것처럼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 장애아 사망 후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등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인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외로움으로, 혐오로, 나이 듦으로, 지역 소멸로, 기후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SDG 1은 과연 가능한 목표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가능성의 시작은 '삶을 살피는 다정한 시선으로부터'이다.

예술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은 예술인으로서의 직업적 정체성과 생활인으로서의 현실 사이에서 복잡하게 살아간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삶은 더 복잡해진다. 그런데, 사회가 창작의 과정과 가치를 이해하고, 예술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한다면 예술인의 삶은 좀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술인의 삶을 살피는 시선의 끝에 예술이 밥 먹여 주냐는 익숙한 사회적 통념이 깨지길 바라고, 예술인의 삶에 맞는 제도가 나오길 바란다. 예술인의 SDG 1은 SDG 16으로 완화될 것이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SDG 16

알고 보면, 예술인도 농업인, 군인, 소방관, 경찰관, 교사 등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직업군 중의 하나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기금 등 안정적 예산 없이 지원사업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직업군의 공통점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까?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 혁신소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사람들과 작품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 '시대상과 사회를 반영하며 창의적 작품 세계를 펼치는 것', 삶과 사회의 문제에 창작활동으로 개입하는 실천'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인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6.8%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표현하는 것 또한 예술인 역할'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예술은 장르에서 벗어나 각종 사회적 의제와 자유롭게 연결되고 있는데, 기후변화, 다양성, 퀴어, 비건, 반려견/반려묘, 플로깅, 환경보호 등 내가 관심 가지는 주제로 자신을 설명하는 예술인도 많아졌다.

손에 잡히지 않아 아직 계량화되지 않았지만 예술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예술이 SDG 16 목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삶을 살피는 시선의 끝에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예술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은 '정책 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방식으로의 개입'에 있다고 생각한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 정책 연구과제 도출 연구」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이슈를 도출했는데, '현재 이슈'로는 돌봄, 인구 감소 및 인구이동, 불평등, 정신건강이, '미래 이슈'로는 기후 변화 및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사회적 재난,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유연성 등이 도출되었다. 이 키워드를 살펴보면, 현재 예술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역과 비슷하다. 실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들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면, 예술은 이미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실천의 과정에서 예술인은 사회의 깊은 문제들을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직시하고 이를 창작의 언어로 풀어낸다. 예술적 개입은 사람들이 사회와 나를 감각하게 한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독자들은 교과서에서 얻는 지식보다 광주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잊히거나 왜곡될 수 있는 역사를 다시금 되새긴다. 한강은 '예술의 방식으로 SDG 4를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채식주의자』는 몇 번 목표를 사람들의 감정과 연결할까?

예술인의 삶이 빈곤에서 자유로워질 때,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예술인의 삶을 살피는 포용적 사회제도가 마련되어 예술이 우리 사회의 불안한 흐름을 전환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75㎞ 유랑하던 지광국사탑 113년 만에 귀향

2024년 11월 12일 오전 부론면 법천사지로 향하는 길에는 만장처럼 걸린 지광국사탑 복원식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분주하게 시간에 맞추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일으키는 뿌연 먼지조차 밉지 않았다.
113년 만의 귀향. 지광국사탑은 몸이 해체된 채 조금 일찍 도착해 조립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날 완벽한 형태의 모습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다.



정부에서도, 불교계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정념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총무원장,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최응천 청장은 '환지본처(還至本處)'를 말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불가에서 본래 청정한 자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인다. 최 청장은 또 지광국사 탑의 최종 목표는 정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지광국사탑비 옆으로 온전하게 가는 것이야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복원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원주시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기념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가 중요 문화재를 지역에 돌려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113년 만에 이뤄진 지광국사탑의 귀향은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 때 파손됐던 탑의 보존 처리와 유적전시관 내 실내 복원의 성과를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2020년까지 약 5년간 탑 부재 29점에 대한 보존 처리가 완료되었고, 2023년 12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최종 복원 위치가 결정됐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조립 공사를 맡고 원주시는 주변 정비 공사를 시행했다. 완성된 석탑의 높이는 5.39m, 무게는 24.6톤이다. 특히 진도 7의 충격에도 탑이 버틸 수 있도록 면진대 설계를 반영했으며, 탑이 지닌 원형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보존처리와 복원은 수많은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레이저 세척법 등 과학적인 보존 처리 방법과 전통 기술을 지닌 장인의 협업 과정이 동반 상승의 효과를 거둔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도상 및 문양 연구, 복원 석재의 산지 연구 등 여러 분야의 공동연구가 함께 수반되어 복원이 완성된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또 해외로 무단 반출된 석조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복원된 역사적인 첫 사례로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국보' 문화유산으로 전국적인 역사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원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발이 달리지도 않은 탑이 1,975㎞를 떠돌다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도 가슴벅찬 일이다. 뿌리가 뽑혀 대한해협을 두 번이나 건너고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몸소 체험한 살아있는 탑인 셈이다.

탑이 세워진 건 지금으로부터 939년 전이다.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천년의 시간을 이어갈 준비를 마친 탑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할 말을 잊게 된다. 볕이 잘 드는 남향의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3면을 유리로 마감해 가장 환한 볕이 들어오는 자리에 탑을 세웠다. 금방 목욕을 끝낸 듯한 돌의 색감과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볕, 창에 길게 드리워진 블라인드가 부드럽게 탑을 감싸고 도는 것 같다. 지광국사탑을 두고 '미인박명(美人薄命)', '석조 예술의 걸작' 등 수없이 많은 수사가 붙는다. 불상과 봉황, 신선 등 화려한 장식과 무늬가 탑 전체를 채우고 있어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다.



사진 원주시





‘중앙동’ 思母曲


강원감영(1971)

김익록 원덕중고등학교 교장

엄마 없는 생일’을 처음 맞이했다. 59년 만이다. 일주일 만에 만난 아내가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차려주고, 멀리에 사는 아이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건만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작년까지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내 생일 무렵이 되면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내가 고기를 넣은 국을 싫어하는 줄을 아시면서도, 밖에 나가 사 먹는 건 잘 먹으면서 왜 엄마가 끓여주는 건 싫어하냐고 줄기차게 고기 미역국을 내놓으셨다. 어머니의 음식은 아주 맛있었다. 자타가 다 인정했다. 그럼에도 언제부턴가 내 머릿속엔 어머니가 해 주시는 음식이 간이 세고 기름지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었던 것 같다. 점점 거동이 불편해짐에도 아들, 며느리에게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내놓는 것을 좋아하셨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늘 타박했다. ‘음식이 짜다’고, ‘힘든데 왜 자꾸 밥을 하냐‘고. 나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어머니가 영원히 내게 밥을 해 주실 줄 알았나 보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 엄마표 밥과 반찬이 아무리 그리워도 다시는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석 달 동안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살림 세간을 정리했다. 어떤 이는 돈 주고 다 버리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1979년에 손수 감리 감독해서 지으신 ‘중앙동’ 살림집에는 장장 45년 동안 어머니의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구석구석 켜켜이 먼지를 쓰고 들어앉아 있었다. 그것들을 정리하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신 먼지보다 더 많은 먼지를 한꺼번에 마신 것 같다. 차라리 옷가지들은 버리기가 나았다. 수십 년 어머니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밥그릇, 수저, 화장대, 서랍장 등 세간살이들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3월에 새로 부임한 임지 관사에 옮겨왔다. 덕분에 익숙한 가구들이 배치된 관사는 어머니의 집을 옮겨온 듯 내게 낯설지가 않고 안정감을 준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 ‘중앙동’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며 신기해했다.

‘중앙동’은 내 부모가 결혼 이후 평생을 살았고,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짓기 전과 후를 합쳐서 50년을 넘게 살았던 삶터이다. 나와 내 동생 두 형제 역시 그곳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며 자랐다. 내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서도 3년을 방 두 칸짜리 집에서 3대가 함께 살았다. 시장 한 복판이지만 극장에서 영사기사로 일했던 아버지와 20여 년 공구 장사를 했던 어머니가 살기에 딱 적합한 곳이었다. 직장에서 10분 거리인 ‘중앙동’ 집으로 아버지는 늘 저녁 식사를 드시러 오셨다. 저기 멀리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면 내 아이는 막 배운 걸음걸이로 달

‘중앙동’은 내 부모가 결혼 이후 평생을 살았고,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짓기 전과 후를 합쳐서 50년을 넘게 살았던 삶터이다.


아카데미극장(1983)


시공관(1983)

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함께 식사한 뒤 아버지는 다시 영화 상영을 위해 극장으로 나가셨다가 마지막 회가 끝나고 난 늦은 시간에 돌아오셨다. 손주와 함께 밥을 먹고 놀아주는 그 저녁 시간이 그에게는 참 행복했다고 살아계실 적에 아버지는 회상했다. 물론 내게도 내 아이에게도 소중한 기억이다.

중앙동에는 시공관과 원주극장이 있었고 길 건너 평원동에는 아카데미극장이 있었다. 사장이 한 분이라 극장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근무했고 아버지는 특히 시공관 극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근무하셨다. ‘시네마천국’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나는 주인공 토토가 마치 내 얘기 같았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일하시는 극장 영사실에서 좁은 창을 통해 영화를 볼 기회가 많았다. 이름난 영화가 상영되는 날이면 극장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 시절 극장은 시민들의 휴식처요 문화 향유 공간이요 데이트 장소였다. 언젠가 멀티플렉스상영관이 등장하면서 원주에서도 단관극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평생을 일했던 극장을 떠나셨다. 한참 후 어느 날 갑자기 시공관이 사라져 버려 당혹스러웠는데 이제는 아카데미극장마저 없어져 버렸다. 도시 규모에 비해 많은 다섯 개의 단관극장을 지니고 있던 영화 도시 원주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 나는 시공관이나 아카데미극장을 연계한 원도심 부활 프로젝트를 기대했었는데 이제 부질없어졌다.

어머니는 박봉의 아버지 수입으로 살림이 어려워 내가 중학교 다닐 무렵부터 외삼촌 소유 건물 가게 한 편을 얻어서 공구 장사를 시작했다. 펜치와 드라이버, 망치 등 공구 몇 점을 놓고 시작한 장사는 만만치



중앙시장(1972)



중앙시장(1953)

않았다. 그 당시 주 고객 남성들에게 여자가 공구를 파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눈물로 지새우는 날도 많았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어느 날 손님 없는 가게 한 편에서 어머니는 이 사연을 써서 당시 인기 있던 MBC라디오 프로그램 '임국희의 여성 살롱'에 보냈다. 특이한 직업이라 생각했는지 사연이 채택되어 방송에 나왔고 짧은 인터뷰까지 하셨다. 그 시절 라디오의 위력은 대단했다. 어머니는 졸지에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대박이 났다. 나와 동생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왔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장사가 잘됐다. 환갑이 되어 자식들의 권유로 장사를 그만두실 때까지 어머니의 중앙동 공구 가게는 성업을 이루었다.

원주 외곽으로 새로운 거주 단지가 생기고 확산하면서 차츰 원도심이 쇠퇴했고, 그 과정에서 살림집이 점점 줄어드는 바람에 나중에는 거의 공동화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대장간 집도 슈퍼 집도 건재상 집도 다 이 동네에서 먹고 자며 장사를 했다. 중앙동은 이곳 상인들에게 가게와 살림집이 분리되지 않은 생활 터전이었다. 부모님은 은퇴한 후에도 이곳에서 살며 살림집을 지켰다. 나는 이곳에서 첫 아이를 낳았고 아내가 갓난쟁이를 업고 나가면 동네 상인들이 먹을 것을 주어서 한 아름씩 안고 들어왔다. 내 기억 속의 중앙동은 인심이 참 후한 동네였다. 나는 분가한 이후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중앙동이 쇠락해 가는 과정을 내내 지켜볼 수 있었다. 해가 떨어지면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되어버려 이웃조차 없는 이곳을 떠나 좀 더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권해도 평생을 살아온 삶터여서 그런지 어머니는 '이 집(이곳)'이 제일 좋다고 고집을 피우셨다. 대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신선한 생선이며 야채며 생필품이며 없는 것이 없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으니 그러셨으리라!

아침 일찍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장에 나가 장을 봐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아들 내외에게 밥을 해 주는 것이 그의 낙이었다!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어머니는 우리 내외에게 도루묵찌개를 끓여주셨다. 일요일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것이 어머니와 함께 하는 마지막 식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는 아버지 떠나시고도 6년을 더 남아 지키셨던 '중앙동' 집에서 세상과 마지막 이별을 하셨다. 점점 쇠약해지시면서 어머니는 병원에 들어가 오래 누워 있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 아마도 50년 삶터이자 당신이 손수 지어 45년을 살아 온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으셨나 보다. 어쩌면 그의 희망대로 어머니는 떠나셨고 나는 이제 '중앙동'에 갈 일이 없어졌다. 그러나 중앙동은 여전히 내 마음의 고향이다. 지금도 낮에는 활기 넘치는 중앙동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아련한 그리움이 올라온다.

중앙동은 여전히
내 마음의 고향이다.
⋮
중앙동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아련한 그리움이 올라온다.





중앙시장(2024)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 그 안에서 나를 찾다

하고 싶어? 그럼 해!

최수정 속초 청봉초등학교 교사

초, 중, 고, 대학 시절까지 나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다. 살면서 한순간도 정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평범하고도 성실한 사람. 그렇다고 그런 환경이 답답하고 숨 막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그 감정이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고등학교 때 방송반에서 처음 써 본 시나리오가 그 시작이었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직접 쓴 시나리오를 올렸는데, 다음 날 고등학생치고는 제법이라는 댓글이 가득 달렸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낯선 칭찬은 신선한 충격이자 즐거움이었다. 영화 전공 대학생들에게 시나리오를 판매한다던가, 아마추어 감독들의 구미에 맞는 글을 써주는 정도의 일은 그리 오랜 흥미를 끌지 못했다. 나는 내 글을 쓰고 싶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초등학교 교사이신 어머니의 뜻대로 교대에 들어가고 교사가 된 뒤에도 나는 내내 글을 놓지 않았다. 매일 한 편씩 시놉시스를 쓰다가 질리면 출판사에 무작정 투고를 하기도 하고, 내가 직접 독자를 모으겠다며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지만 짧은 글 아래 달리는 사람들의 댓글이 좋아서 나는 매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쓰고 또 썼다. 그렇게 남들을 위한 이야기만 써주다 보니 어느새 내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흘렀다.

“우리,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할래?”

그 이야기들을 온전히 풀어내기 위해 나는 1년 반 만에 교사를 그만두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짜릿한 일이었다.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은 분명히 내가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후회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작가교육원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고 운 좋게 영화와 뮤지컬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쯤 되니 나에게 재능이 없는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고, 조금씩 글이 지겨워졌다.

그렇게 나는 두 번째 임용고시를 치렀다. 단기간의 합격을 위해 매일 문제집을 한 권씩 풀고 학원도 스터디도 없이 오직 집에만 틀어박혀 공부에 매달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마치 미련처럼 늘 글 주변을 맴돌았다. 언젠가는 꼭 내 이름으로 된 작품을 쓰리라는 생각으로 끝없이 공모전을 준비했고, 라디오며 잡지사에 내 이야기를 써 보냈다. 그렇게 다시 교사가 된 지 딱 5년 만에 내 안의 이야기들이 또 한 번 차올랐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무렵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내가 두 번째 퇴사를 결심하고 난 뒤, 남편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우리,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할래?”

캠핑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남편을 꼬시는 게 목적이었다. 혼자만 직장을 그만두고 이 험한 세상에 뛰어드는 게 두려워 냉큼 붙잡은 동아줄이었다고나 할까?

“그래! 그러자.” 너무도 흔쾌한 그 대답에 오히려 당황한 건 나였다. 양가 어르신들이 보았다면 아마 둘 중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잔소리를 한 열두 시간쯤 늘어놓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퇴사로 깨달은 내 인생 모토는 내 결정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말자는 것이었다.

우린 결혼 1년 만에 나란히 퇴사했다. 퇴사 후 우리의 새로운 생계유지 수단은 자기소개서 첨삭 일이었다. 처음에는 아무 경력이 없으니 단돈 5만 원에 자소서 첨삭을 해주었다. 글자 수 무관, 단돈 5만 원이라는 말에 6천 자, 8천 자씩 되는 첨삭 일이 줄줄이 밀려들었고, 나는 밤잠도 설쳐가며 첨삭 일에 매달려야만 했다.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는 도중에도 일이 들어오면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유 있는 여행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린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자기소개서 컨설팅 사업을 막 시작한 참이었다.

나의 세 번째 도전은 황당하게도 작가가 아닌 사업가였다. 무대포로 시작했던 첨삭 일은 나름의 실력을 인정받아 오프라인 컨설팅으로 이어졌고, 코엑스 직업 박람회에서 당당히 한 부스를 배정받아 자소서 특강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무렵 나에겐 다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글을 쓰기 위해 선택한 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된다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내 글을 쓰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의 취직을 돕느라 내 글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다음 운명을 찾아 떠났다.

이번에는 강원도였다. 전부터 복잡한 서울을 떠나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살고 싶었다. 그런 곳이라면 퇴근 후에도 여유롭게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었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 일단 회사를 접고, 나는 다시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속초로 발령을 받았다.





> “이 다음엔 또 어디서 뭘 할 생각이야?”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냐고. 정답을 찾기 위해 떠난 그 길 위에서 나는 전에는 결코 만나지 못했을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난생처음 마주한 위기 앞에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틈틈이 글을 쓰고 또 쓰며 내 안의 진짜 나를 발견했다. 그 경험들이 쌓여 내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고, 학교에서 평생 아이들과 함께 할 글쓰기 교육 노하우를 얻게 되었다. 요즘도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안부 인사처럼 나에게 묻는다. “이 다음엔 또 어디서 뭘 할 생각이야?”

요즘 나는 새롭게 웹 소설 연재에 도전 중이고, 우리 반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을 집필 중이다. 운 좋게 걸어온 평탄한 길 위에서 한 발 짝도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나는 매일 같은 고민과 후회를 반복하며 지루한 일상을 버텨내고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하려 한다.

하고 싶어? 그럼 해!

> “하고 싶어? 그럼 해!”

기억과 연대를 통한 단단한 도시 만들기

지난 11월 13일, <도시의 변화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김승수 前 전주 시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전주의 사례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은 수강생

동화 <아기 돼지 삼 형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는다. 셋째 돼지는 형들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벽돌로 집을 지었다. 동화의 결말은, 다들 아는 것처럼 늑대의 강한 입김에 지푸라기 집과 나무집은 날아가 버리고 벽돌로 지은 셋째의 집만이 늑대로부터 돼지들을 지켜주었다.

강의를 들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도시는 벽돌로 짓는 집이구나.' 벽돌집을 짓듯 단단한 조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리고 벽돌 사이를 이어주는 끈끈한 접착제도 있어야 한다는 것. 단단한 조각을 차곡차곡 쌓는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다. 지푸라기를 마구 덮어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정성으로 벽돌 한장 한장을 쌓아야 한다. 도시의 벽돌은 시민이다. 흔히들 도시를 떠올리면 도로, 건물 등과 같은 인프라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도시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승수는 말한다. 도시는 물리적인 구성이 아니라 기억의 집합체라고. 기억의 집합체는 곧 사람이고, 이는 사람이 도시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시민 하나하나가 곧 도시인 것이다. 김승수는 시민의 기억 속 재생의 기억을 말한다. 선미촌과 팔복예술공장, 그리고 전주의 공공도서관 사례들은 시민들에게 재생의 기억을 심어준 사례다. 시민들이 피하는 공간을 예술인들의 마을로 바꾸고 폐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사람의 발걸음이 끊긴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도시의 물적 요소에 변화를 꾀함으로써 부정의 기억을 긍정의 기억으로 바꾸었다. 과거에 머물던 기억을 현재로 끌고 왔다.

전주시의 선진 시정으로 꼽히는 도서관 정책을 많은 도시에서 벤치마킹한다.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 공공도서관의 수는 1,271개로, 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4만여 명으로 절대적으로 도서관의 수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은 수의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을 수용해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전주시립도서관 '우주로 1216'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탄생시킨 도서관이다. 부족한 물리적 인프라를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었다. 자신의 힘으로 도서관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도시 속, 본인의 역할을 크게 느끼며 자기효능감을 적극 느낄 수 있게 된다. 도시의 벽돌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전주시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시민에게 도시 구성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한편, 도시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었을 것이다.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접착제는 공통의 기억, 혹은 연대다. 전주의 변화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기억으로 계속하여 연대해 나갈 것이다. 연대는 사람 사이에서도 가능하지만 도시 사이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김승수는 '도시의 성장이 옆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되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의 등불을 보았다.

그리고 등불은 나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다. '나도, 우리 도시도 단단한 집이 될 수 있을까? 원주는 시민 70% 이상이 이주민으로 구성된 도시다. 그 말은 시민 사이의 연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쌓인 공통의 시간은 없지만 누적하여 쌓인 시간이 다채로운 색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원주에는 6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던 단관극장이 있었다. 극장이 활발히 운영될 때의 기억과 폐관 이후의 기억, 다시 극장 문을 연 이후의 기억이 뒤섞인 다채로운 기억 유산이었다. 지금은 물리적 공간이 없어지고 그 위에 기억 유산을 잃은 경험이 쌓였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어떻게 기억을 쌓아 도시의 벽돌을 만들어야 할까.

강연을 진행한 ㈜도서출판이음의 서연남 대표는 '개인이 반복해서 하면 습관이고 공동체가 오래 하면 문화가 된다'라는 말로 강연의 내용을 압축했다. 도시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연대의 중요성을 꼬집는 말이었다. 셋째 돼지의 벽돌집을 타박한 첫째, 둘째 돼지도 결국 셋째 돼지와 합심하여 집을 지켰다. 집을 짓듯이 도시를 만드는 일도 결국 꾸준한 시간과 연대로 완성하는 것이다. 시민이라는 벽돌과 연대라는 접착제로 만들어진 벽돌집은 단단한 문화를 가진 도시가 될 것이다.

강연이 끝나고 한가지 강하게 드는 생각은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고민하고 나눠야 한다. 우리의 기억 하나를 잃는 것은 집의 벽돌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우리 공동의 집에 비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 유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난폭한 늑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좀 더 연대하고 단단해져야 한다.



신선함이 가득한 아침 선물

농업인새벽시장

글. ㈜도서출판 이음
사진. 김선임



새벽의 정적을 깨고

밤새 잠들었던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시간.
나는 어김없이 원주 농업인새벽시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아직 캄캄한 새벽녘, 시장은 벌써 활기가 넘친다. 농부들의 손길이 닿아
따스한 온기를 머금은 채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싱싱한 과일들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난다.

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코를 자극하는 것은 흙냄새와 풀 내음이다.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시골 외갓집에 갔을 때 맡았던 그 향기다.
정겨운 사투리와 함께 오가는 인사말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농부들은 자신이 정성껏 키운 작물들을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신선한 채소를 골라 담는다.





원주 농업인새벽시장은

단순히 농산물을 거래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단순히 먹거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의 노고와 땀방울,
그리고 지역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해주는 곳,
원주 농업인새벽시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식 I

제12기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 내디뎌 CI(심벌·로고) 제작, 웹사이트 전면 개편, 위원 워크숍 개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을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1월 22일 다양한 분야의 인사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제12기 협의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3월 말 사무처장과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3개월 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사무처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지방의제 21' 상징을 그대로 사용하여 온 CI를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목표를 담은 심벌과 강원특별자치도체를 이용한 로고로 새로운 CI를 제작하였다.

또 웹사이트(홈페이지)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GW-SDGs)'를 메인화면으로 내세워 새롭게 디자인하는 등 전면 개편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협의회 활동 홍보 확대와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위촉된 제12기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과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외에 강원도 내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교류는 물론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참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네크워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에는 협의회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펼쳐 지속가능발전과 협의회 활동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Gangwon State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식 II

2024 제17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5년만에 옥외 개최 개회식 및 포럼, 홍보부스 운영..기대 이상 성과 거둬

지속가능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2024 제17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가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춘천시 강원체육회관과 송암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열렸다.

국내 최대의 지역 박람회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열린 이번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열린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잠정 중단되었던 2022년과 2003년 이후 5년 만에 장외 대면 행사로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후원으로 열린 이번 강원대회는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포럼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및 사무국·처장 연석회의, 지속가능발전 홍보부스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첫날 개회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김명선 행정부지사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포럼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도형 지역발전연구센터장과 강원연구원 이원학 선임연구위원이 『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역 행복 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감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원대 장희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국토연구원 정우성 연구위원을 비롯해 상지대 김주영 교수, 강원대 최충익 교수,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정성림 마을공동체 팀장이 패널로 참가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실천 방향과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개회식에 앞서 열린 「도·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및 사무처·국장 연석회의」에서는 도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네트워크 유대 강화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실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방시대 엑스포장에 마련된 지속가능발전 홍보부스에는 사흘 동안 4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이 방문해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조사에도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번 강원대회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2025년부터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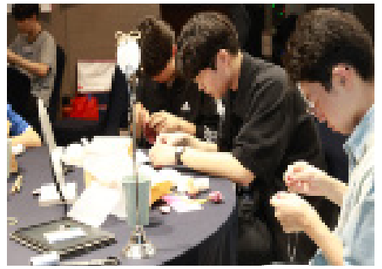
2024년,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선정하고 약 9개월 동안 멘토링을 비롯한 봉사와 연구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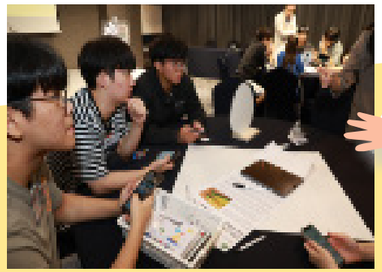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에는 강원 지역의 춘천, 원주, 동해, 양구 등 각지에서 11개의 봉사 동아리와 10개의 사회참여 동아리 소속 3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 광촉매를 이용해 하천 유기 오염 물질 분해하기 △ 잔류농약 제거 방법 연구 △ 도서관 심야 개장 △ 함께라서 좋아요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참여 학생들의 동기를 강화하고자 5월에 진행된 워크숍에는 강원도 각 지역에서 모인 7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교사, 멘토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SDGs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가짜뉴스의 팩트체크 활동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1월에는 '2024 청소년 프로젝트 나눔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9개월간 탐구한 활동 결과와 진행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서 사회 변화를 주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지역 문제를 자신의 시각에서 정의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속초의 보물 자연석호 청초호, 속초시민이 지킨다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4년 10월 12일 청초호에서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자연석호인 청초호의 수중과 수변습지에 버려진 각종 오염물질 및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80 kg
이날 수거한 수중 쓰레기(수거용 마대 6자루)

160 kg
이날 수거한 생활쓰레기(수거용 마대 15자루)

20명의 다이버,
50명의 참여자
함께한 인원

청초호 서측 호안 수중에서는 속초 다이버동호회원 20여 명이 고무보트 2대를 이용, 직접 잠수해 수중 폐기물(폐어망, 죽은 해조류, 패류 등을 수거하는 활동과 청초호 서측 청초천 하구 습지에서는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회원,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속초 시민, 속초시 친환경정책과 직원 등 50여 명이 습지 갈대밭과 모래톱에 있는 생활 쓰레기(비닐류, 스티로폼, 병, 캔 등)를 수거하는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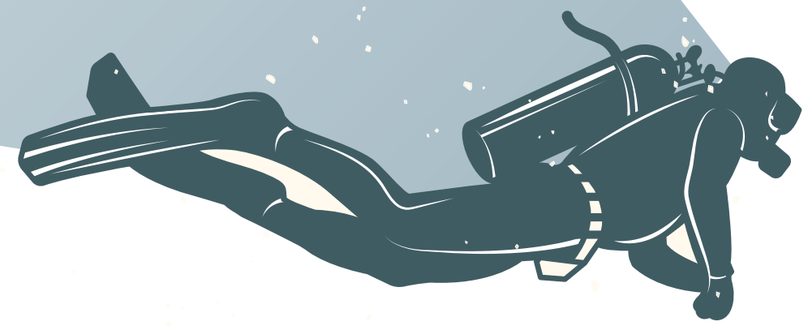




이날 정화 활동으로 수중 쓰레기 80kg(수거용 마대 6자루), 생활 쓰레기 160kg(수거용 마대 15자루)을 수거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활동에도 상당량의 쓰레기가 수거된 점을 보아 향후 수중 및 수변습지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간 2회(봄,가을) 이상의 정화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석호의 환경오염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의 확산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자연유산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석호의 도시 속초시가 자연 석호의 가치와 보호·보전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꾸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평창의 지속가능한 발자국 남기기

'빨리빨리'를 외치고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작은 쉼표를 만들고 평창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탄소중립의 길을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하는 환경교육이 미래세대부터 현재세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여러 형식의 교육을 통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탄소중립의 길을 미래세대와 현재세대가 동행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동의와 공감을 얻으며 해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유아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상자 텃밭 만들기,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환경 인형극(이상한 지구 이야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하천 생태계 모니터링, 초등학생·중학생을 위한 탄소중립 맞춤 교육 이상한 기후 이야기(총 10회 교육), 현재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이야기 수업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EM 교육과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했던 교육을 2024년부터는 현재세대의 교육까지 확장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더 많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창의 탄소중립의 길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채워나가야겠습니다.



상자 텃밭 만들기



찾아가는 기후학교-이상한 기후 이야기



하천 생태계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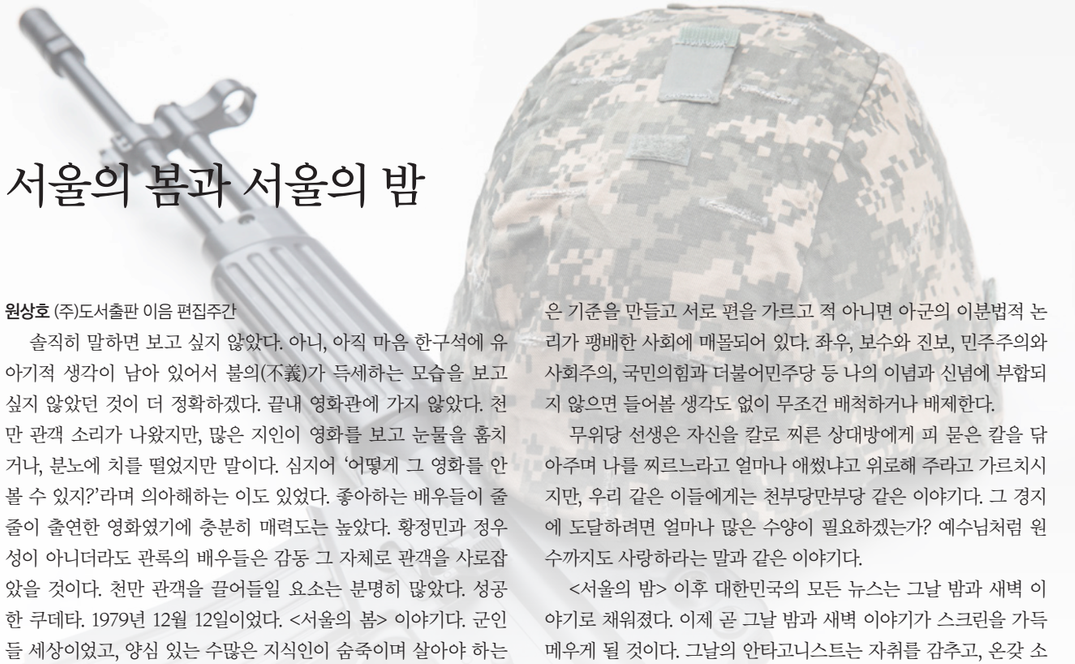
제15회 평창군 어린이 환경 사랑 자연사랑 그리기·글짓기 대회

2024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6월 7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야외잔디밭에서 "제15회 평창군 어린이 환경 사랑 자연사랑 그리기·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25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였으며, <나는 우리 동네 환경 히어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리기와 글짓기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환경 히어로를 표현하며,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행사장에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환경 보호를 직접 체험할 기회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환경 문제를 더욱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키웠고, 학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더욱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지역사회 전체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의 봄과 서울의 밤

원상호 (주)도서출판 이음 편집주간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아직 마음 한구석에 유아기적 생각이 남아 있어서 불의(不義)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더 정확하겠다. 끝내 영화관에 가지 않았다. 천만 관객 소리가 나왔지만, 많은 지인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훔치거나,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말이다. 심지어 '어떻게 그 영화를 안 볼 수 있지?'라며 의아해하는 이도 있었다. 좋아하는 배우들이 줄줄이 출연한 영화였기에 충분히 매력도는 높았다. 황정민과 정우성이 아니더라도 관록의 배우들은 감동 그 자체로 관객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천만 관객을 끌어들일 요소는 분명히 많았다. 성공한 쿠데타. 1979년 12월 12일이었다. <서울의 봄> 이야기다. 군인들 세상이었고, 양심 있는 수많은 지식인이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세상에 들어섰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서울의 봄>은 군사 반란 중심에 선 '전두광(황정민)'을 극의 중심이자 안타고니스트(Antagonist, 반동인물)로 내세운다. 실존했던 인물을 모티브로 한 그의 연기는 많은 이에게 찬사를 받았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피로 물들이고, 민주화의 희망을 산산조각 낸 인물, 바로 전두환이 그의 모티브가 됐다. 군인의 본분을 저버리고 권력 앞에 선 가장 탐욕스러운 인간형이다. 영화는 전두광이 고뇌에 빠지는 인간적인 면을 비중 있게 담으려 하지 않았고, 덕분에 절대악이자 광인으로서의 면모가 잘 보였다고 평가받는다.

이제 곧 <서울의 봄> 후속작으로 <서울의 밤>이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후속작은 꼭 보고 싶다. 수많은 사람을 잠 못들게 했던 그날의 이야기가 극적인 요소와 만나면 어떤 거대한 대작이 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일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민은 '비상계엄'이라는 비현실적인 상황과 직면했을 때, 아마도 헛웃음이 나오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든다. 나라를 나락으로 밀어버린 그는 꽁꽁 숨어 버렸다. 민란이라도 일어날 태세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몇 번의 담화를 했다.

절대 선(善)은 없고, 절대 악(惡)도 없으니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잘못을 나무랄 권한은 없다. 그 잘못이라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둔 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구분을 하게 되고, 구분을 하게 되면 배제를 하고, 배제를 하고 난 뒤에는 억압이라는 폭력이 따라온다는 어느 노학자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기준을 만들고 서로 편을 가르고 적 아니면 아군의 이분법적 논리가 팽배한 사회에 매몰되어 있다. 좌우, 보수와 진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나의 이념과 신념에 부합되지 않으면 들어볼 생각도 없이 무조건 배척하거나 배제한다.

무위당 선생은 자신을 칼로 찌른 상대방에게 피 묻은 칼을 닦아주며 나를 찌르느라고 얼마나 애썼냐고 위로해 주라고 가르치시지만, 우리 같은 이들에게는 천부당만부당 같은 이야기다.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양이 필요하겠는가?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다.

<서울의 밤>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그날 밤과 새벽 이야기로 채워졌다. 이제 곧 그날 밤과 새벽 이야기가 스크린을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그날의 안타고니스트는 자취를 감추고, 온갖 소문들이 난무한다. 사살이라는 말과 총살이라는 말이 버젓이 허공을 떠돌고, 체포조와 특수부대 이야기도 회자된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전국 대학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가 선정됐다. 도량발호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의미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현 상황을 꼬집기에 적절한 사자성어라는 평가를 받는다. 끝으로 『맹자』 양혜왕 하편에 보이는 역성혁명론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금의 현실을 보고자 한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묻는다.

"탕왕(상나라 창업주)이 하나라 걸왕을 내쫓고 상나라를 세웠고, 무왕(주나라 창업주)은 상나라 주왕을 죽이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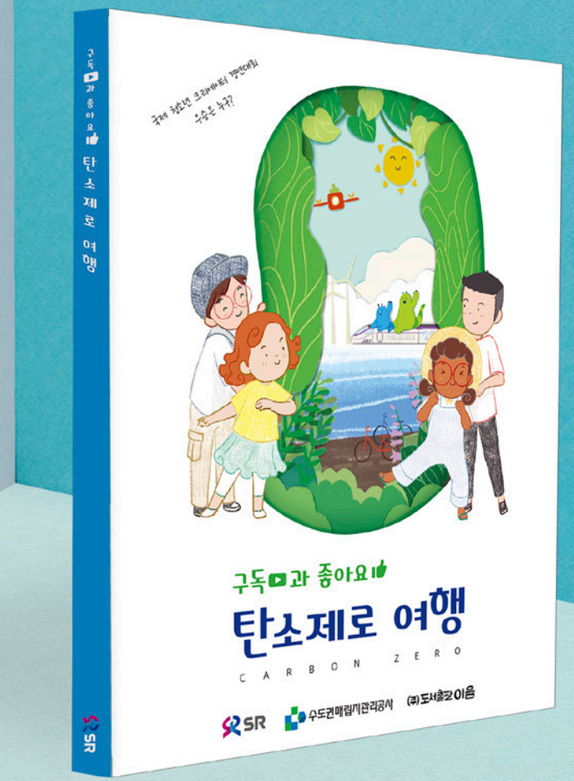
"기록이 있으니 맞겠지요."(맹자)

"그런데 말입니다. 신하가 군주를 죽여도 됩니까."(제 선왕)

"주나라 무왕(재위 기원전 1046~1043)이 '한낱 사내'(一夫·상나라 마지막 임금 주왕을 지칭)를 죽였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임금을 죽였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짊과 올바름을 해치는 자는 '사내'(一夫)에 불과합니다."

맹자는 하늘의 뜻을 갖고 있는 백성의 지위를 군주보다 위에 놓았던 셈이다.

"세상을 바꾸는 탄소제로 여행!
희망의 미래로 함께 가 볼까요?"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 웰빙 교육 양성평등 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산업 책임 양질의 일자리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공동체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파트너십 정의와 제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모두를 위한 '그림책'으로 노래하다.